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한 사람을 위한

헌정 연극제

Servant Drama

1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김세연
김예원
윤주안

2연
<덧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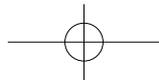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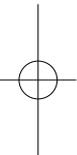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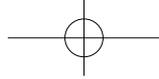
박신비
신동엽
정다운

3연
<문>

박예빈 박지원
임하연 오영화
김세연 허윤진

담당교사 조영민

Dreamy School





2022-1
'Servant Drama'

“

피내며...

드림학교의 일곱 번째 연극 수업을 개설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연극의 표면적인 아름다움보다 연극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연극' 이라고 했는데 그 인생의 진실을 연극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연극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것이리라.

공연이 지속되다보면 그 무대에서 받는 스포트라이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사람들의 박수와 관심, 칭찬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어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것을 또 찾게 된다. 그렇지만 연극을 한 편 올린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 이기에 선블리 이에 제도전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연극을 올려도 극장을 찾아오는 이가 많지 않고 다른 장르의 무대예술에 비해 지루하고도 침울한 내용이 많아 각광을 받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다보니 현대의 연극이 점차 대중적인 장르의 옷을 입고 가볍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점철되기도 한다. 그러한 연극에서는 인생의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번 연극 수업은 제목부터 변화를 주었다. ‘Servant Darma’ 누군가의 종, 누군가의 역할을 수행해주고 나는 없는 그런 연극을 만들어보기를 바랐다. 배우 윤석화씨는 ‘배우는 희생제사의 희생물과도 같은 것’ 이라고 말한다.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아 철저하게 자신을 불태우며 타인에게 감동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로 여겼다고 한다. 좋은 배우는 배역에 자신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극중 인물이 되려고 노력한다. 심지어는 한 달 간 치매를 앓고 죽어가는 젊은 여성을 연기하고 나서 실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말도 있다. 이렇듯 누군가가 되어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나의 감정에는 쉽게 연민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은 그 대상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연기인 것이다.

우리는 자기 주변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각자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찾아갔다. 학생의 아버지, 할머니, 친구를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 공감한 마음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연극으로 만들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헌정 연극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제 이 연극을 들고 그 한 사람에게로 간다. 그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인생이 찬란할 것임을 말해주자 했다.

아직은 더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의 마음 한 구석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면 이들의 인생이 기대할 만 하겠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 한 칸을 내주는 일이 연극이자 인생임을 아는 녀석들이기 때문이다.

이 극을 만드는 이들에게는 힘겨운 한 학기였다. 그렇지만 힘겹게 인생을 살아온 그분들의 인생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쉬운 학기였다. 인생이라고 하는 참으로 가볍고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던 모든 분들에게 이 수업을 드리고 싶다. 그분들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오길 희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Servant Drama 지도교사
조영민

2022-1 'Servant Drama' PURPOSE

- 우리가 함께 서로 섞여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공연의 희생물로서 성경적 공연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생각과 정서를 함양하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 인물, 갈등, 구조 등을 활용한 희곡의 요소를 감안하여 자신만의 희곡을 창작하거나 타인의 작품을 각색할 수 있다.
- 기획, 연출, 디자인 등의 종합 예술 활동의 과정을 통해 연극을 만들어 공연할 수 있다.
-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여 공연이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 활동 내용(3P)

Play

주제놀이
- 인터뷰

연극놀이
- 자신의 독백 발표
- 타인 독백 발표
- 희곡 감상 및 연극 감상

Performance

희곡 창작 활동
- 극본 작성

희곡 창작 활동(개인 활동)
- 희곡 구성도 점검
- 인물 창작
- 대사 쓰기
- 연출 노트 작성
- 큐시트 작성
- 희곡 창작 과정 상호
피드백 및 수정

활동 수행
- 대본리딩
- 캐스팅 및 연출노트

- 연기연습
- 연출지도
- 대본 분석
- 큐시트 작성(조명 음향 계획)
- 의상과 무대 디자인
- 공연 프로그램과 포스터

Practice

결과물 제작과 공유: 섬김과 실천

찾아가는 공연
- 연극 대상과 대면
교내 공연
- 3P Festival 발표

연극 수업을 마치며,
나에게 연극이란

나에게 연극이란, 문이다.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선 열고나면
새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연극이었지만, 일단 도전하
고 보니 내게 더 좋고 단단
한 새 길을 제시해 주었다.

- 임하연

이번 연극을 통해 공동체를 더 살피면서 애증을
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연극을 하는 공동체와 함께 가장 좋은 것
을 지향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
지 함께해 준 친구들과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특별한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사랑과 새 힘을 전달했다면,
난 충분히 행복하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연극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나에게 연극이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 윤주안

나에게 연극이란, 믿음이다.
연극은 연기로만 되지 않는다.
내 앞의 상대역과 나를 믿고, 나를
내가 해온 시간들과 노력을
믿을 때 무대 위에서 내가
은 그 전부를 보여줄 수 있다.

나에게 연극이란, 고난이다.
고난을 뚫어서
뜻깊은 것을 얻기 때문이다.
연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박지원



여러분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참 감사했어요.
 이번 연극의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맺는 한 대사, 한 대사가
 연극이 될 수 있었어요.

나에게 연극이란,
 이해의 통로이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 오영화

나에게 연극이란, 별이다. 별은 빛나는 것이다. 밤하늘을 보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다. 연극을 하면서 나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추억 하나 더했다.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를 달과 별이 반짝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이 어두운 밤하늘에 달과 별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런 작가는 별빛 하나가 어두운 내 마음에 어두운 내 마음을 환히 밝혀준다. 연극을 담겨 있다. 그래서 나에게 연극은 나의 밤하늘을 밝히는 하나의 별이다.

- 김예원

나에게 연극이란 판타지 그 이상이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 현실과 상상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연극은 삶 속의 희노애락, 고민, 갈등,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를 현실처럼 표현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극본을 창작할 때와 한 인물이 되어 연출과 연기를 할 때는 우리의 무한한 상상이 더해진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연극은 판타지 그 이상의 것이다.

- 정다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연극은,

어느 누군가에게 우연히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에
지난 생애를 돌아보며 감동과 감사함을,

또 이제껏 달려온 길과 '나'를 살펴보며
회복을,

혹은 앞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데에
신한 원동력을...

그런 선물들을 아낌없이 받기를,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길 바라며
열심히 준비하고 포장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보고 싶어 할 연극을,
받고 싶어 할 연극을,
배울 수 있는 연극을,
그 사람을 위한 연극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돋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비록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 있었고,
이 속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선함을 실천하여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려 합니다.

우리는 'Servant Drama' 입니다.



목차

알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p.32

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영원한 짝꿍, 노년의 이야기

- 극 소개
- Product Plan
- 대본



덧질하다 ...p.12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잠시 멈춰 선 중년의 이야기

- 극 소개
- Product Plan
- 대본



문 (치사한 사람들) ...p.56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스무 살, 청년의 이야기

- 극 소개
- Product Plan
- 대본



뎨칠하다

박신비 신동엽 정다은

Servant Drama

기획 의도

우리는 관객에게 가족을 위해 시간과 걸을 내어 주는 것이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임을 전하고자 했다. 또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길이 가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덧칠하다” 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극에는 연극의 대상이 가족을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 한 선택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담았다.

연극의 실제 인물

Dreamy school 재학생 박신비의 아버지. 6남매 중 유일한 남자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실력이 좋다는 말을 들으며 미고와 미대를 나왔다. 하지만 좋지 않은 형편의 가정 속 독남이었기에 안정적인 삶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결국 결혼 이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이 이제껏 해온 미술을 포기하며 돈을 버는 일을 택했다. 우리는 대상을 인터뷰 할 때 돈과 꿈, 그리고 그 돈의 목적이었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얻으려 했다.

미술을 계속 했더라면 어땠을까?
“미술을 계속 해나갔다면 우리 가정은 힘들었을 것이다”
10대로 되돌아간다면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십대로 돌아간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도전하며 시도해보고 싶다.”

인터뷰 답변 중 위의 두 문장을 바탕으로 대상이 한 때 갈등했을 돈과 꿈, 이 두 단어를 집중적으로 본 연극 속에 담았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
대상의 인생과 사연을 알고 이를 위로하는 연극을 만드는 수업인 Servant Drama,
이 수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위로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이 들어가는가?
우리가 대상을 위로하는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그 대상을 알아야 했으며 직접 대상이 되어 연기를 해야 했다.

연극 설명

덧칠하다

한 직장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의 화방에 찾아와 그림을 부탁한다.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고집하는 화가는 직장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돌아서지만, 둘 사이의 대화가 오가며 결국 그를 화방 안으로 맞이한다. 화방 안에서도 계속되는 화가와 직장인의 대치 속 화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장인은 화가의 딸을 만나게 된다. 직장인은 딸과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본다. 화가가 다시 화방으로 돌아오자 화가는 딸과 갈등이 생기고,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후 며칠이 지나 직장인은 그림을 받는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극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지 되돌아보게 한다. 관객들은 직장인으로 살다가 화가에게 그림을 받은 뒤에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는 ‘차장 일’에게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관객들은 ‘이광윤’의 예술적인 그림을 보며 지금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길 기대한다.

작품의 성경적 해석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부모도 그 자녀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하신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다. 가족은 우리가 서로 사랑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고린도후서 5:18)



캐스팅



이광윤 : 신동엽

중학생 때부터 그림을 그려온 화가. 부모님께서 화가의 길을 걷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그런데도 화가의 길을 걸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찾고 그것들을 그림에 담는다. 자기 자녀인 아인이에게도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한다.

차장일 : 정다은

청소년 때 자신이 좋아하던 일을 시도도 못한 채 부모의 말을 따라 공부만 했다. 외로운 가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오다가 30대 후반이 되어 자신의 존재와 삶에 무의미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척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서 한 무명 화가를 찾아가 그림을 부탁한다. 장일에게 그림은 자신의 감동을 표현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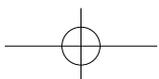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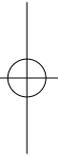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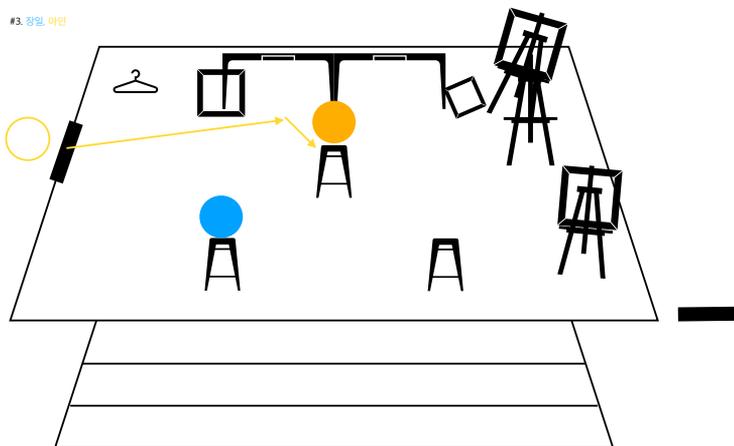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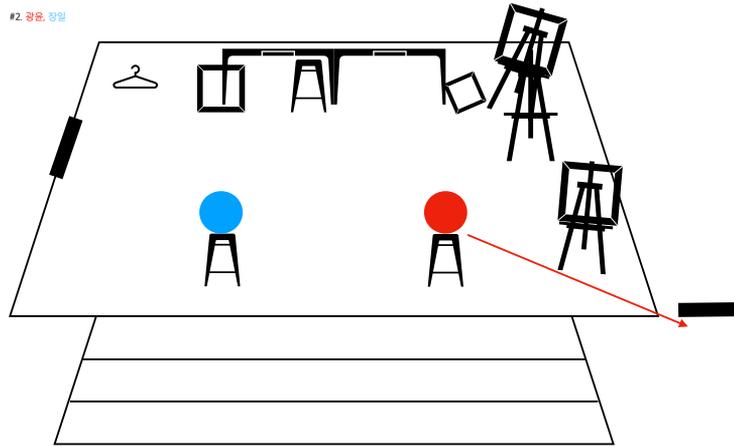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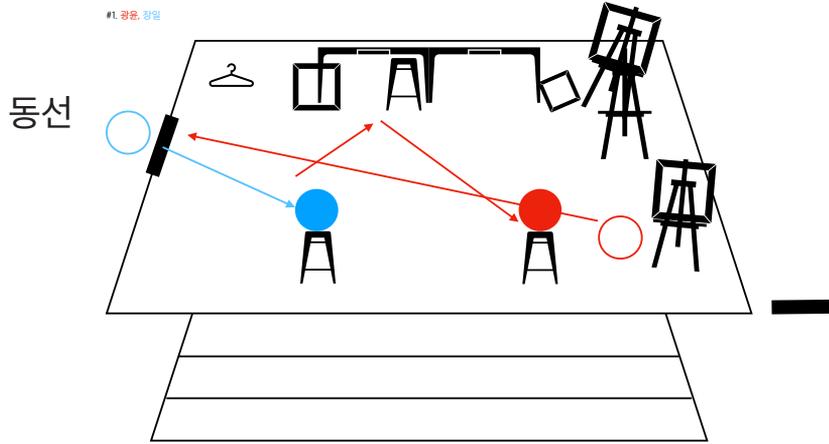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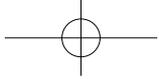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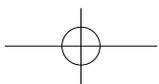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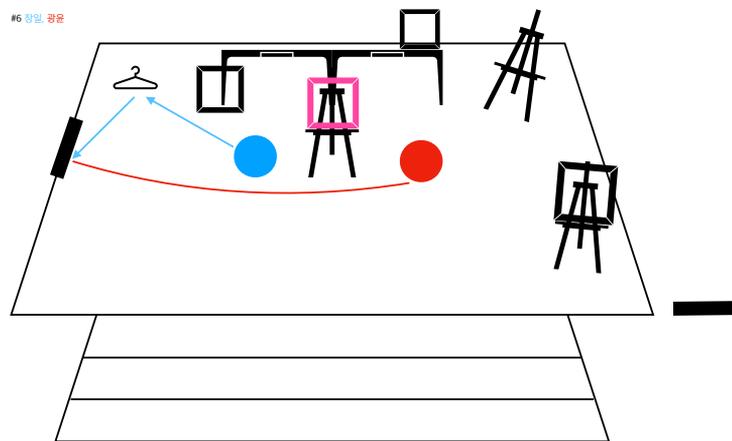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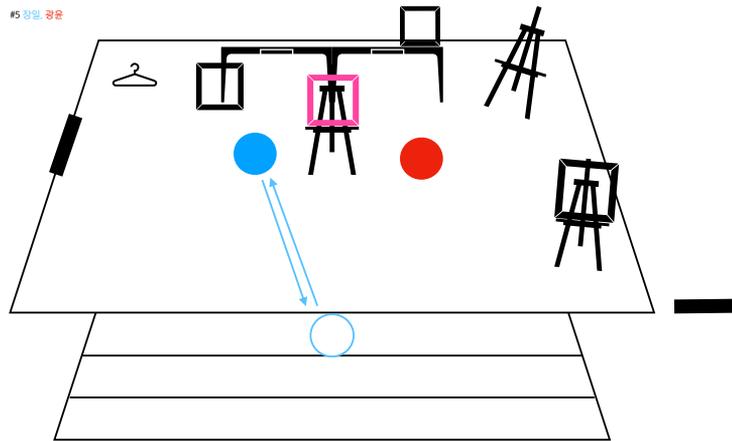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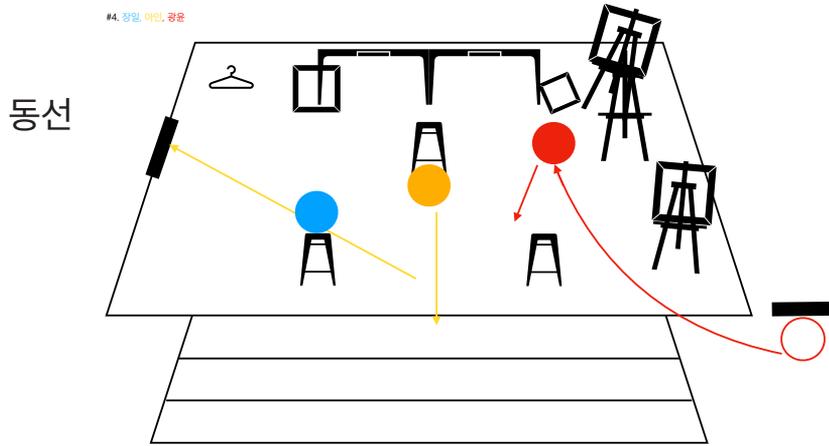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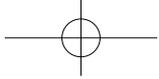
이아인 : 박신비

생계가 불안정한 가정 속에서 자라왔다. 그 때문인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안 좋은 상황에 있어 수용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어린시절을 보냈다. 경계적인 결핍이 있어서인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 감성적이며 의사가 확고하다.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을 추구한다.



덧
칠
하
다





연출노트

#1 차장일	화방 안에서 반응이 없자 여러 번 반복해서 노크. → 화방 안의 사람을 빼내려는 의도가 있는 동시에 광윤에게 거슬려서 분노해서 문을 열도록.
#1 이광윤	저는 사람은 안 그림니다. 잘못 찾아오셨네요. → 대사 후 칼같이 뒤돌아선다.
#1 차장일	“초상화는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과 흔적들이 모두 담긴 거잖아요.” → 관객을 보면서 대사 : 초상화가 가진 깊은 의미를 강조.
#1 차장일	“저번 전시회 때,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난 뒤로 같은 그림을 보려고 몇 번이나 전시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작품은 제 생각에 큰 변화를 주었어요.” → 관객을 보면서 대사 : 광윤의 그림을 보고 받은 감동이 관객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도록.
#2 이광윤, 차장일 대사	“사람 얼굴은 아무런 영감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전 단지 얼굴만 담는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 관객을 보고 대사를 해서 광윤과 장일이 사람들에게 ‘초상화’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 간절함. 설득해야 함.
#2 이광윤	(앉은 상태로 다리를 꼰다) → 장일의 말에 무관심함을 표현. “몇 번 본 사이도 아니고, 당신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 모습을 그린다는 말입니까?”
#2 이광윤	(벽 위쪽에 걸린 시계를 잠깐 바라보고) → 시간이 없을 뿐더러 장일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음을 표현. “내가 한가해서 이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2 차장일	“함께 얘기하지 않으면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요...” → 관객을 보면서 대사 : 함께 대화하지 않아 생겼던 인간관계의 문제를 강조.
#2 차장일	“저는 제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저는 어떤 모습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 관객을 보면서 대사 : 자신의 삶의 이유와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메시지.
#2 이광윤	→ 의자에서 일어나며 대사 : 자신이 화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내는 화가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연출노트

#3 이아인	<p>“네? 뭘 제자예요. 그냥 딸이에요.” → 불편해하고 짜증내며 대사 “맨날 화방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데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예요?” → 아빠에 대한 서운함과 아빠를 두둔하는 장일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며 대사.</p>
#3 이아인	<p>“그러고 남들 다 성공할 때 나만 꿈 타령하면서 뒤쳐지라고요?” 강한 반항심에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대사.</p>
#3 차장일	<p>“그럼 넌 좋아하는 일을 평생 못 하겠구나...” → 관객을 보면서 대사 : 좋아하는 일을 택할지, 포기할지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에 대해 생각하도록 함.</p>
#3 차장일 대사 뒤의 아인의 반응	<p>“그럼 넌 좋아하는 일을 평생 못 하겠구나” → 장일의 대사를 들은 아인의 혼란스럽고 불편한 표정 강조.</p>
#4 이아인	<p>→ 의자에서 일어나며 대사 : 억울함과 답답함, 분노. “진짜 아니라니까?”</p>
#4 이광윤, 이아인	<p>분노해서 내치는 손동작, 손 올리기 등.</p>
#5 차장일	<p>→ 기대에 부푼 발걸음으로 무대에 입장 : “드디어 보는 건가요!”</p>
#5 차장일	<p>석류를 표현하는 손동작, 정말 경이로움을 느낀 것 같은 몸동작, 연필을 드는 손동작,</p>
#6 차장일의 연기	<p>“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둘러서 집을 행기는 모습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찾은 마음을 표현.</p>

<덧칠하다>
2022-1 Servant Drama
신동엽, 정다운, 박신비

#1

유화 도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반지하의 화실. 쿼쿼한 냄새가 날 것만 같은, 어둡고 칙칙한 화실 안 여러 그림과 액자가 벽에 걸려있고 미처 걸지 못한 그림들이 바닥에 기대있다. 그 동안의 시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오래되어 마른 물감의 흔적이 곳곳에 위치한다. 물감이 묻어있는 팔레트, 낡아 보이는 붓들과 얼룩덜룩한 물감통들이 어지럽게 놓여있고 말라버린 꽃 화병, 각종 액자들이 불규칙적으로 쌓여 사뭇 난잡하게 보이기도 하는 책상이 화실의 벽 쪽에 위치한다. 화실의 중앙에서 이광윤은 팔짱을 끼며 그림을 그리다가 자신 앞에 놓인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문소리)

이광윤 : (불편한 듯이) 이아인! 문 열려있어. 그냥 들어와.

차장일, 못 듣고 다시 문을 두드린다.

이광윤 : (화난 듯 걸어들어오며) 아빠 작업할 땐 문 두드리지 말라니까. 왜 문을 계속...

이광윤, 문을 확 열었다가 차장일을 보고 얼굴을 찌푸린다.

이광윤 : (사이)(까칠하게) 누구시죠.

차장일 : 아..., 여기가 이광윤 작가님 화실 맞나요?

이광윤 : (눈썹을 추켜올리며) 제가 이광윤입니다.

차장일 : 아, 안녕하세요...! 저는 차장일이라고 합니다. 저번 전시회를 봤는데 그림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이광윤 : (통명스럽게, 따지듯이) 제가 뭐 해달라면 다 해주는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단호하게, 사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도 있어서 바빠요.

차장일 : 그래도 한 장만 그려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작가님 그림 받아보겠다고 일도 관두고 달려왔어요.

이광윤 : (삐딱하게 서 팔짱을 낀다) 제게 무슨 그림을 그렇게 원하는 건가요?

차장일 : ...제 초상화요. 지금 제 모습을 작가님께서 캔버스에 담아주셨으면 해요.

이광윤 : (얼굴 찌푸리며) 저는 사람은 안 그립니다. 잘못 찾아오셨네요. (뒤돌아 가려고 한다)

차장일 : 정말 초상화... 딱 한 장 그리는 게 안 될까요...?

이광윤 : (다시 뒤돌아 선다) 난 초상화고 뭐고 사람을 안 그린다고. 왜 자꾸 그러는 건데요? 당신이 원하는 건 그냥 얼굴 그림일 뿐이잖아요. 사람 얼굴은 아무런 영감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차장일 : ...그건 아니에요. 전 단지 얼굴만 담은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전부터 작가님의 그림을 봐왔어요. 그리고 작품 하나하나에서 사람을 봤죠. 초상화는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과 흔적들이 모두 담긴 거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의 그림이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단순히 제 모습을 그리려고 작가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광윤 : (의아하게 바라봄) 얼굴만 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초상화에 집착하는 거죠?

차장일 : ...이제 제가 걷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들 것 같아서요.

(정적)

이광윤 : 뭐라는 거야. 내가 왜 당신이 선택하는 데 확신을 주도록 도와야 되는데.

차장일 : 그냥 그림이면 몰라도 제가 부탁하는 그림은 작가님 작품 아닌가요...! 제가 아는 이광윤 작가님이잖아요. 저번 전시회 때,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난 뒤로 같은 그림을 보려고 몇 번이나 전시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작품은 제 생각에 큰 변화를 주었어요. 작가님의 그림은 제게 그만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도 제 말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광윤 : (한숨) 쫓. 그래요. 일단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2

차장일, 광윤의 안내에 따라 화실 안으로 들어온다. 장일, 화방을 이리저리 살피며 구경한다.

차장일: 들어오게 되어 영광이에요...!

이광윤: (커피를 준비하며 대충 자리를 가리키며) 저기 앉으시면 됩니다.

차장일, 의자에 앉고 광윤은 차장에게 믹스커피를 건넨다.

차장일 : 와!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광윤: (믹스커피를 타 장일에게 건네며) 그래서 무슨 그림을 원하신다고요?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 간단히 하시죠.

차장일 : 작가님이 생각하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이광윤 : (앉은 상태로 다리를 쫓다) ...몇 번 본 사이도 아니고, 당신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 모습을 그린다는 말입니까?

차장일 : 그건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죠. 게다가 작가님은 화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셨을 거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느껴지는 게 있다던데...! 저랑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그림 안에 좀 담아 주세요.

이광윤 : (짜증난 듯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나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혼잣말을 하듯 한숨을 쉬며) 차라리 자연을 보는 게 낫지. 지금 당장 그려야 할 그림이 몇 개인데요. (벽 위쪽에 걸린 시계를 잠깐 바라보고) 내가 한가해서 이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차장일 : 한가하지 않으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이광윤 : 그리고 당신 왜 하필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찾고자 하는 것이면 상담을 갈 것이지, 왜 굳이 나한테까지 와서 이러는 건데요?

차장일 : 이제까지 저도 찾아다녀 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저를 잘 몰라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함께 얘기하지 않으면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광윤 : (헛웃음 지으며) 그럼 나는 당신을 알아요? 그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모르는 사람이 저예요.. (중얼거리듯이) 주변에 같이 살아오던 사람인데 과연 모를까.

차장일 : 작가님은 주변 사람들을 다 아시나 보네요.

이광윤 : (자신감 넘치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내는 화가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모르더라도 그리는 대상을 알아내서 표현하는 것이 화가인 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차장일 : 그렇다면 저에 대해 알아갈 이유는 없으신가요? (사이) 작가님 저는요, 제가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요. 저는 진짜 저를 찾고 싶습니다.

이광윤 :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나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점들은 당신이 직접 알아와야 할 것들이에요. 남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차장일 : 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광윤 :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그 흔적들이 당신입니다.

차장일 : (한숨을 쉬며) 저는 어릴 때부터 하라는 것만 하고 자랐어요. 부모님께서 대기업에 가라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라고 하셨고요. 제가 좋아했던.. 음악과 미술은 얼마 하지도 못하고 공부만 했었죠.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들어가 보니 저는 제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저는 어떤 모습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광윤 : (한숨을 쉬며) ‘잘 되어야 한다, 너가 우리 집안 책임 져야 한다.’ 이런 말 못 들 어본 사람 몇이나 되나요. 어른들이 하라는 것 그대로 하고 살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 죠.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소중 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면 자신의 길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일 : 그렇군요.. 제게 정말 소중한 가치는 뭡까요..

이광윤 : 구하면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그림은 그려 드리도록 할게요. 캔버스 갖고 올 테니 여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3

(손에 종이를 든 이아인이 들어온다)

차장일 : 안녕.

이아인 : (고개 까딱인다) 안녕하세요. (화방을 두리번거리다가 혼잣말한다) ...없나 보네.

차장일 : 작가님 찾아? 잠시 캔버스 가지러 가셨는데 좀 기다리면 오실 거야.

이아인 : 아, 네. (고개를 끄덕이고선 삐딱 서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본다)

(정막)

차장일 : 혹시 작가님 제자야?

이아인 : (얼굴을 찌푸리며) 네? 뭘 제자예요. 그냥 딸이에요.

차장일 : 아~...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 이아인, 핸드폰을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고 주위를 살피다가 한숨을 푹 쉬며 책상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어질러진 공책들과 물감을 정리한다.)

이아인 : (책상을 발견하고) 아~, (다가가 책상을 정리한다) 아빤 맨날 나한테 치우라고 하면서 자긴 안치우고 이게 뭐야(계속 책상을 정리한다)

(한 번 쿵, 소리가 크게 난다.)

차장일 : (의자에서 일어나서) 도와줘?

이아인 : 아뇨, 괜찮아요. 신경쓰지 마세요. (캔버스를 다시 바로 세우고 마저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차장일 : 착하다, 아빠 일도 이렇게 돕는 거 보니까.

이아인 : 아, 그냥 볼일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눈에 밝힌 것 뿐이에요.

차장일 : 그렇구나. (웃으며 눈을 돌리다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발견한다) 어, 저기 있는 저 그림도 작가님이 그리신 거야?

이아인 : (잠깐 고개 돌려 벽을 보았다가 다시 정리에 집중한다) 네. 몇 년 전예요.

차장일 : 아, 되게 잘 그리셨다.

이아인 : 맨날 화방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데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차장일 : 그만큼 많이 그리셨다는 거잖아. 난 작가님을 존경하게 되는 걸...

이아인 : (손을 털며 일어나 의자에 앉는다) 시간보다 결과가 중요하죠.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서 그림을 그려도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차장일 : 그런데도 작가님은 작가님만의 길을 가고 계시잖아. (말을 하며 걸어와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작가님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오겠지.

(사이)

차장일 : 넌 그림 그리는 거 안 좋아해?

이아인 : 좋아해요. 근데 직업으로 하기는 싫어요.

차장일 : 왜?

이아인 : 그림은 돈 안되잖아요. 일은 돈 되는 거 해야죠.

차장일 : 그래? 너처럼 어릴 때는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좋을 텐데.

이아인 : 그러고 남들 다 성공할 때 나만 꿈 타령하면서 뒤쳐지라고요? 쪽팔리게. 엄마 얼굴 어떻게 봐요.

차장일 : 그러다 어른 돼서 후회한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벽이 막아서 어려울 거야. 그때는 네가 뭘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걸.

이아인 : 그거 가지고 나름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좋아하는 것도 돈이 많아야 가능하겠단 싶은거죠.

차장일 : 그러니?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조언인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아인 : 하고 싶은 일은 놓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든 뭐든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걸 선택하고 시간을 쓸모없이 보낼 바엔 그냥 처음부터 안하고 말죠.

(적막)

차장일 : 그럼 넌 좋아하는 일을 평생 못 하겠구나...

이아인 : (침묵)

광윤이 들어온다.

#4

이광윤 :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멋쩍게 웃으며 들어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그림을 발견한다. 그 그림을 주워 들며 놀란 듯한 말투로) 이 그림이 왜... (이아인을 응시하다가 차가운 어투로)

이아인, 이거 누가 떨어뜨렸어?

이아인 :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광윤 : 정말? 너 저번에도 그림 떨어뜨린 적 있잖아.

이아인 : 그땐 그때고, 오늘은 지 알아서 떨어졌나 보지 왜 나한테 난리야?

이광윤 : 난리야? 누가 봐도 네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떨어졌는데.

이아인 : 아,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광윤 : 봐, 너가 한 게 아니면 설명했겠지. 맨날 이판식으로만 행동하고 이게 뭐야.

이아인 : 진짜 아니라니까? (한숨 푹) 아...씨 (혼잣말 하듯이) 겁나 답답하네.

이광윤 : 씨..? 이아인, 그게 아빠한테 할 소리야?

이아인 : 뭐, 아빠는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자주 보지도 않는데 볼 때마다 뭐라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이광윤 : 볼 때마다 너가 화방에서 온갖 민폐는 다 부리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지금까지 너가 사고 친 작품만 다섯 개는 넘어.

이아인 : ...아빠는 그림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가봐?

이광윤 : 그걸 어떻게 비교해? 미술은 미술대로 나한테 소중하고 가족도 가족대로...

이아인 : (말을 딱 자르고) 가족이 소중하다면서 왜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다른 거 바꿨어? 그냥 딸 보러 일 잠깐 내려놓고 와주는 거, 학교 행사 있으면 그때 나 보러 한 번 와주는 거 그거 한 번이 그렇게 어려웠어? 맨날 그림 그린다고 나 보러 온 적 몇 번 없잖아.

이광윤 : 이아인.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해? 너 내가 매년 없는 시간 쪼개서 바다 데려갔던 건 기억 안 나? 아빠가 너 위해 노력한 건 기억 안 하고 그렇게만 말한다?

이아인 : 바다 가서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간만의 가족 여행이었는데 아빠는 핸드폰만 봤잖아. 평소에 그림 그린다고, 바빴다고 하면서 우리랑 있을 때도 제대로 안 했잖아! 그래서 엄마랑 나랑 어땠는 줄 알아? 저번에는 또 어땠는데? 모처럼 휴일이고, 아빠도 하루 쉬다고 하길래 곧 엄마 생일이니까 케이크 사서 집 갔더니 아빠만 없더라. 이게 가족 맞아? 노력?(사이)다 아빠만의 노력이지. 우리 가족이 진짜 원했던 게 뭐지 아빠는 몰라.

(이아인, 화가 난 걸음걸이로 화방을 나간다. 냉랭한 정적 속)

이광윤 : 이아인. 이아인!

(이광윤, 이아인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쉰 뒤, 차장일을 바라보며 씩씩한 미소를 짓는다.)

이광윤 : (한숨) 저는 그림을 중학생 때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렸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그리는 것이 좋아 시작한 그림은 제가 저로서 출발한 곳이자 제가 돌아가야 할 곳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힘든 길을 걸을까 봐 제가 화가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었죠. 물론 부모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돈을 못 벌더라도 행복합니다. 저는 아인이에게 그 점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알게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와 방향을 알아내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것을 아인이가 알았으면 했습니다.

차장일 : 혹시 아인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광윤 : (자신만만한듯 말을 시작했다가 점점 힘이 빠지며) 당연하...

(이광윤, 말을 하려다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듯 입을 열었다 단기를 반복한다. 점점 표정이 굳어가던 중, 뭔가 깨달은 듯 차장일을 쳐다본다)

#5

차장일, 화방 안으로 들어간다. 이광윤은 자연스럽게 장일을 이끌고 화방의 안쪽으로 안내한다.

차장일 : 드디어 보는 건가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몇날 며칠을 고대했는지 몰라요.

이광윤 : 유화라서 마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차장일 : (고개 끄덕이며) 그렇구나...

이광윤 : (캔버스를 장일에게 건넨다) 이 그림입니다.

(캔버스를 받아 보고서는 놀라는 장일, 광윤의 시선은 캔버스로 고정된다)

차장일 : 석류...네요? (사이) 와, 씨앗이 굉장히 알차고 위에 나팔 같은 꽃도 정말 예뻐요. (사이)

차장일 : 갈라진 석류. 이게 제 모습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광윤 : 석류는 깊고 원만한 아름다움을 뜻하죠.

차장일 : 아름다움... (사이)

어릴 때 저희 집 뒷편엔 석류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석류나무는 여름이 시작되는 동시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초가을 쯤엔 부모님과 함께 얼굴만 한 석류들을 따먹었죠. 그러다 다음 해 여름, 문득 찾아간 그 석류나무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런 기분은 난생 처음 겪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꽃을 어디에도 좋으니 생하게 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무작정 연필을 들었죠. 그게 제 첫 그림이었어요. 그 이후로 쪽 그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석류꽃 하나만 수십 장은 그렸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본 것과 제 감정을 한 그림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정말... 황홀했죠.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그림을 그리자 저는 자연스럽게 화가를 꿈꾸게 됐어요. (멋쩍게 웃으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니 그때가 생각나네요. 무언가를 열정있게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이광윤 : 지금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을 그저 불품없이 깨진 석류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당신은 불품없는 게 되는 거죠. 분명 당신에게 있어, 그 모습이기에 아름다운 것이 존재합니다.

(사이)

이광윤 : 과거는 과거에 남을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지금, 그때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장일 : 갈라진 이 석류처럼 자신의 모습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건가요?

#6

차장일 : (급하게 짐을 챙기며)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광윤 : 예?

차장일 : 제 아들이 보고 싶어져서요. (작게 웃는다)

이광윤 : (캔버스를 손으로 들고서는)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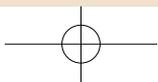
차장일 : (사양한다) 그림은 제가 부탁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받을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화방에 홀로 남은 광윤, 자신의 손에 다시 쥐어진 그림을 보다 이젤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발을 옮겨 퇴장한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dry, cracked riverbed. The cracks form a complex, branching pattern across the landscape. The colors are muted, with shades of brown, grey, and black. The text '뭇칠하다' is overlaid in the lower right quadrant, with each character having a different color and a textured, water-like appearance.

뭇칠하다

박신비 신동엽 정다은
Servant Drama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김세연, 윤주안, 김예원

Synopsis & Biblical Interpretation

Synopsis 시놉시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소녀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보살핀 은주,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마와의 갈등과 가난한 환경이 있었기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개팅에서 양장점을 하고 있는 구영호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자신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남편인 영호의 양장점이 도둑을 맞게 되고 부부는 절망 가운데 양장점을 폐업하게 된다. 양장점을 폐업하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양장점을 운영할 때처럼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호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살기로 다짐하게 된다.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적 해석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는 윤점순 여사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구성된 연극이지만 단지 윤점순 여사님의 인생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일, 나쁜 일 등등 여러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상황에 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지 못하고 찾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깊은 뜻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극을 보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거나 현재 자신에게 놓인 상황을 생각하게 하고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Information About the subject Of a play

연극 대상 : 윤점순 여사님

연극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는 드림미 3기생 김세연 학생의 외할머니이신 윤점순 여사님의 인생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연극입니다.

어린 시절 윤점순 여사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고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양장점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많이 가난했기에 윤점순 여사님은 꿈과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이 운영하던 양장점에 도둑이 들면서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극을 제작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인터뷰를 통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남편분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등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여사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모아 제작하였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자는 메시지를 담아 연극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Product Plan

장/막	등장인물	장면	음향	조명	장비/소품	연기/연출포인트
#1	윤은주 윤은수 (남동생) 구영호 (남편) 정지숙 (엄마) 나레이션	은주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집을 치운다. 그리고 동생들을 재운다. (동생은 목소리만 출연) 은주가 지숙한테 양장 학원 이야기를 꺼낸다. 과거를 회상한다.(소개팅) 소개팅에서 청혼을 받는다.	나레이션 때 Big dream - With You	은주가 대사를 치며 무대로 들어옴 -> 조명 on 은주 마지막 대사 후 소개팅 자리로 걸어감 -> 핀 조명 in 남편 마지막 대사 -> 서서히 핀 off 나레이션 걸어나옴 -> 중앙 핀 on 나레이션 후 off	탁상, 책상, 의자 3개, 빨랫감, 컵 3개, 주전자, 쓰레기들 또는 장난감, 설거지감, 엄마의 가방	집(과거) 윤은주 - 간절하지만 조심스러운 듯 양장점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소개팅 구영호 - 청혼 멘트 할 때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대사를 해야 한다. 보는 사람이 다 긴장되게.
#2	윤은주 구영호 (남편) 나레이션	집에서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영호가 출근하려다 집에 키를 두고 간 것을 알고 다시 집에 간다. 남편을 보낸 후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에서 교회에 가는 것을 권유받는다.	나레이션 때 Big dream - Morning Coffee	조명 하나로 유지 -> 노란 색, on 은주가 성경책을 읽는 것을 몇 초 정도 보여줌 -> 몇 초 후 off 나레이션 중앙에 도착한 후 -> 중앙 핀 on 나레이션 후 -> 핀 off, 나레이션 나갈때까지 암전	블레이저, 거울, 걸레, 달력, 컵, 전화기, 열쇠, 신발, 책장, 성경책	열쇠 줄 때 구영호 - 정말 급하게 뛰어온 것 처럼 연기 성경 찾기 윤은주 - 성경 책장에서 조금 오래 찾기
#3	윤은주 구영호 (남편) 나레이션	남편이 바쁘게 출근준비를 한다. 남편이 키를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다가 은주 덕분에 찾게 된다. 교회 목사님과 전화를 하다가 교회 집사님 가게가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어서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자기네 양장점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은주는 통화 후 절망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다.	영호에게서 전화가 오고 은주가 "설마" 라고 하자마자 바로 BGM Oppsite Way -> 나레이션 끝까지 재생 유지	노란빛 조명에서 살짝 붉은 색을 더한 조명으로 시작 양장점에 도둑이 들었다고 연락을 받는 장면에서 -> 은주 핀 on 영호 나오면 -> 영호 쪽 핀 on 전화 끊고 -> 영호 핀 off 성경 읽은 후 -> 전체 암전 나레이션 중앙 도착 후 -> 중앙 핀 on 끝나면 -> 핀 off	리모컨, 가방, 행거, 컵 2개	신발 안신은채로 집 들어올 때 구영호 - 보는 사람이 공감하도록 도둑맞았을 때 윤은주, 구영호 - 전화라도 목소리에 다급함이 느껴지게

Product Plan

장/막	등장인물	장면	음향	조명	장비/소품	연기/연출포인트
#4	윤은주 구영호 (남편) 나레이션	<p>은주가 집에서 tv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다.</p> <p>남편이 은주가 보고 있는 tv채널을 돌리고, 채널로 살짝 티격태격 하다가 tv를 끈다.</p> <p>tv를 끄고 은주와 남편이 대화를 하며 예전 양장점 이야기를 꺼낸다.</p> <p>남편이 은주의 손을 잡고 대사를 말한다.</p>	tv 볼 때 tv 소리	<p>붉은 색 조명 유지</p> <p>구영호 : 천생연분으로 만남시다 멘트 끝나고 -> 서서히 조명 off</p> <p>나레이션 걸어나옴 -> 중앙 핀 on</p> <p>나레이션 후 off</p>	리모컨, 서류가방, 행거, 컵 2개	<p>현재 양장점을 정리 후 삶을 살고 있으므로 영호와 은주는 조금 더 여유롭고 노년의 사랑을 보여줘야함.</p> <p>영호와 은주는 자신의 속 마음을 이야기할때 조금 더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함.</p>
#5	윤은주 윤은수	<p>빨래를 개고 있는 은주가 등장 동생에게 전화가 온다.</p> <p>전화를 받고 동생이 양장점 이야기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 받는다.</p> <p>전화를 끊고 빨래를 개면서 찬양을 흥얼거린다.</p>	<p>동생이 전화걸 때 전화벨 소리</p> <p>노래 흥얼거리다</p> <p>자나깨나부터 노래 재생</p>	<p>우측 핀 조명과 전체조명을 알게 사용한 채로 유지</p> <p>노래를 부른 후 -> 서서히 off</p> <p>커튼콜 -> 서서히 얇은 조명 in</p> <p>전체 인사 다 끝나면 -> 서서히 조명 off</p>	전화기, 의자 1개, 액자, 탁상, 빨랫감	<p>은수와 전화</p> <p>윤은주 -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잃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잘 표현해야함</p>

CAST



김 세 연
윤은주 역



윤 주 안
구영호 역



김 예 원
정지숙 역 / 나레이션

<잊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 대본 -

일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1

윤은주 : (집 안 정리를 하고 있다) 애들아~ 얼른 씻고 나와 이제 자야지

윤은수 : 누나, 근데 엄마는 언제 와? 오늘도 또 늦게 와?

윤은주 : 엄마 일하러 가셨어, 이제 곧 오실 거야

윤은수 : 곧이 언젠데?

윤은주 : 너희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이불 덮고 누워

윤은수 : 알았어.. 누나는 언제 자..? 재워주면 안 돼? 우리끼리 자면 잠 안 온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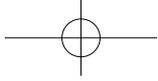
윤은주 : 누나 빨래 개야 해 먼저 자고 있어 곧 갈게

윤은수 : 알았어..

윤은주 : (널브러져 있는 빨래를 쳐다본 후 한숨을 쉬며 개기 시작한다)

빨래를 개기 시작한 후 한참 뒤

지속은 들어와서 가방 내려놓은 후 쌓여있는 설거지를 본다



윤은주 : (인기척이 난 쪽을 돌아보며) 어 엄마 언제 왔어?

정지숙 : 방금 왔지, 근데 너, 설거지 안 했어?? 어휴 냄새, 엄마가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일하고 와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해? 다음부터 잘 해줘. 어디 봐, 이걸 다 깬 거지? (쿵쿵 냄새를 맡는다)
어머,이거 냄새가 왜 이래? 제대로 빨 거 맞아? 으이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얼른 들어가서 자 엄마가 마저 할게.

윤은주 : 알았어 (정리하며 일어난다, 쭈뼛쭈뼛 엄마 눈치를 살핀다)

정지숙 : 뭐해 얼른 들어가라니까 ~

윤은주 : (판청을 피우며) 아니.. 그냥 엄마 요즘 장사는 잘 되나 해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나?

정지숙 : 뭐 늘 똑같지.. 오늘도 손님 두어 명 겨우 왔다 갔어...

윤은주 : 아니 나 오늘 옆집 미영이 만났는데, 양장점 학원 다닌다고 하더라고...

미영이네 엄마도 엄마랑 같이 일하는 거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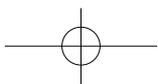
정지숙 : 그래? 난 침 듣네. 누군 애들 옷 사 입힐 돈도 없는데...학원?

그런 거 다닐 시간에 다른 거 뭐라도 했겠다

윤은주 : 근데 엄마 나도

정지숙 : 너는 절대 그런 쓸데없는 거 할 생각하지 말고 하던 거나 열심히 해.

그거 다 시간 낭비야. 알지? 이제 얼른 들어가서 자



윤은주 : 알았어 엄마도 빨리 자

테이블로 가서 앉는다.

구영호 : 그게 다예요? 한 마디도 못 꺼냈다고요?

윤은주 :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론 아예 접었어요. 엄마도 힘 들어하시고 어린 동생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엄마 말이 맞긴 해요, 옷 사 입을 돈도 없으면서...

구영호 : 그래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딸 꿈도 안 들어주셨을까요?

윤은주 :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딸 꿈, 말했으면 도와주셨겠죠. 근데 딸은 하나밖에 없지만 아들은 여섯 일 걸요, 저 때문에 동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는 형편에 꾸역꾸역 지원해 줄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구영호 : 어머니는 참 좋은 딸을 두셨네요..

윤은주 : (웃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미용사도 하고 싶고 양장점도 해보고 싶고.. 꿈이 참 많죠 근데 그것도 사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안되는 거 알지만 꿈은 꺾도 되는 거 같아요

구영호 : 꿈.. 좋죠. 은주 씨, 제가 은주 씨 꿈 다 이루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저 그래도 양장점은 있습니다, 꿈 이루어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꿈도 이루면서 저랑 같이 살아요.

암전

내레이션 : 그날, 나는 청혼을 받았다. 몇 번 만나보지 않은 상대에게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운명이었기에 그렇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결혼 후 행복한 생활을 했다. 영호 씨는 내가 원하던 양장점 운영이라는 꿈을 이루어 주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꿈들을 이루어갔다.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2

윤은주 :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일찍 오는 거죠?

남편 : 아 오늘 옆에 구두점 양반이 가죽 좀 같이 봐달라고 해서 그거 봐주고 오면 저녁 먹기 전엔 울거야 배고프면 먼저 밥 먹고 있어 여보.

윤은주 : 그렇구나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구영호 : 네 전화할게요 여보

영호가 출근한 후 길레로 선반을 닦다가 영호의 열쇠를 발견한다

윤은주 : 어 이거...이게 왜 여겼지 이거 양장점 열쇠 아닌가..?

그때 영호가 뛰쳐들어온다.

구영호 : (헉헉대며) 아니.. 키.. 키를...두고 가서.. 키 좀 줄래요

윤은주 : (키를 건네준다)아.. 여기요

구영호 : 다녀올게요 여보

윤은주 : (웃으며)네 조심히 다녀와요

은주는 다시 걸레를 집어 들며 선반을 닦으려는데 전화가 온다.

전화벨이 울린다 Rrrrrrrr

윤은주 : 여보세요? 네 어머니 방금 출근했어요. 어떤 일이세요? 아~~ 이따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몇 시쯤이오? 3시오? 네네 일정 없어요 어머니. 앗 네... 교회요...? 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유 어머니가 오라는데 가야죠.. 과일 좀 깎아 갈까요? 네네, 성경책이요? 성경 책.. 책장에 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찾아보고 들고 갈게요. 네 이따 빌게요~!!

윤은주 : (책장을 살피며) 성경 책이~~~.... 개역개정.. 성경. 이건가?

어머 성경 책이 있었네?

성경 책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기 시작.

내레이션 : 어머니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성경에 적혀 있는 말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몰랐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따라 계속 교회를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조금은 깨닫게 되었다. 성경에 적힌 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또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된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

#3

윤은주 :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오늘도 늦어요?

구영호 : 아마? 손님들 주문이 한두 개 들어온 게 아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윤은주 : 그렇게 바빠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예요.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아 맞다. 열쇠는요? 열쇠 챙겼어요? 또 까먹고 두고 갈라.

구영호 : 아 맞다 맞다. 어제 탁상 위에 둔 것 같은데,

윤은주 : 없는데요?

구영호 : 저기 탁상 밑에 한번 봐봐요.

윤은주 : 없는데요?

구영호 : 아니 잘 찾아봐 저기 저기

윤은주 : 아니 진짜 없어요..

구영호 : 아니 저기 그.. 아이(신발 벗을까 말까 고민하다 벗지 않고 불편하게 들어온다)
나와 남편은 열심히 찾다가..

윤은주 : 왜 없지.. 여보 주머니는 확인해 봤어요? 설마 주머니에 있는 건 아니죠?

구영호 : (주머니를 확인한다)에 이 내가 그것도 확인 안 해봤겠..

모두 일시 정지 키는 주머니에 있었다.

구영호 : (키를 꺼내들고 다시 불편하게 현관으로 간다) 다녀올게 여보

윤은주 : (웃으며) 이 이도 참. 조심히 다녀와요.

(성경을 읽으러 간다)

성경을 읽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전화기를 잡는다.

전화번호부 또는 번호가 적힌 종이를 보며 전화를 건다 (주보도 가능)

윤은주 : 네 혹시 연정 교회 목사님 댁인가요~~ 네 사모님 저 은주입니다. 평안하시죠~?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우 네 들었어요 소식. 요즘 저희 양장점도 괜찮아져서 되니 일 새벽에배 끝나고 잠깐 뵈까 해서요. 네? 권 집사님 가게가 도둑이 들었다고요? 어쩐 좋아요. 괜찮으시나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게요. 당연히 도와야죠.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네 물어보시고 꼭 연락 주세요. 아니에요. 저희 요즘 괜찮아요. 꼭 연락 주셔야 돼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꼭 연락 주세요~(끊는다)

윤은주 : 어머 어찌먼 좋아... 돈이라도 조금 보태드려야 하나? 걱정이네..

전화벨이 울린다.

윤은주 : 네 사모님. 저도 방금 마침 생각하던 중인데, 어머.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예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네?

구영호 : 아 아니 그게.. 여보.. 우리 가게가... 우리 가게가... 내가 분명 밤에 문단속을 꼼꼼하게 했는데...

윤은주 : 설마.. 아니죠 여보? 그럴 리 없어요.. 여보 말 좀 해봐요

구영호 : 아니긴 뭐가 아니야! 굳이 말해야 알아!?

윤은주 : 경찰에 신고는 했고요? 비단들은요?! 일단 비단들이랑 옷 디자인해놓은 서류, 서류들부터 찾아봐요

구영호 :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비싼 비단들부터 작은 원단들까지 싹 다 훑쳐 갔어...

윤은주 : 금고도요? 그래도 중요한 서류들은 있을 거 아니예요!

구영호 : 몰라요...난장판이어서 뭐가 어딴지도 못 찾겠소... 아니 그리고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 봤는데 잡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네.. 요즘 너무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 경찰들도 힘쓰고 있는데 소용없나 봐... 미안해 여보.

윤은주 : (적막이 흐른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구영호 : 우선 빨리 수습하고 집에 갈 테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요

윤은주 : 알겠어요...조심히 와요

영호와 전화를 끊는다

윤은주 : (평소처럼 성경 책을 펼쳐서 읽다가 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암전

내레이션 : 믿을 수 없었다.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내가 보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이기를 바랐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지니 막막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책뿐이었다. 힘든 상황도 상황인데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원망은 나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말았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맞는지, 정말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 시선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4

TV를 보던 은주. 남편 퇴근.

윤은주 : 언제 왔어요? 연락하고 오지 밥이라도 차려 놓을 텐데.

구영호 : 괜찮아 여보. 밥 먹고 왔어. 아직까지도 안 자고 있었어요? 피곤할 텐데..

(겉옷 벗고, 가방 내려놓고 등등)

윤은주 : 이것만 보다 자려고요

윤은주 : (관객을 보며) 어우 저거 저거 정말.. 쫓

구영호 : 뭐 봐요? 재미있어요?

윤은주: 이거 요즘 제일 유명한 연속극이잖아요. 몰라요?

구영호 : 그래?

윤은주: 저 여자가 저 남자랑 부부 사이인데 저 여자가 저 남자랑 바람 쐬거든요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살잖아요

구영호 : 어.. 그래?

(눈치를 보며 TV를 다른 채널로 바꾼다)

윤은주: 아이 뭐야. 뭐예요 왜 다른 거 틀어요?

구영호 : 연속극 말고 뉴스 봅시다

윤은주 : 아 이것만 보고요 당신 뉴스는 매일 보잖아요

구영호 : 아니 어제랑 오늘이랑 소식이 다르지

윤은주 : 참나.. 뉴스가 다 비슷비슷하지 (다시 채널을 돌린다)

영호가 눈치를 보다 TV를 끈다..

윤은주 : 아이 왜 끄고 그래요?

구영호 : 아이 그냥 TV 보는 것보다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윤은주 : (웃으며) 차라도 한잔 마실래요?

구영호 : 차 좋지

은주가 차를 타고 있을 때 영호가 은주의 뒷모습을 보며 말한다.

구영호 : 여보 내가 항상 고맙고 미안해요.. 매일 집안일이나 시키고 당신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말도 못 지키고.. 요즘 많이 힘들죠?

윤은주 : 괜찮아요.(사이) 양장점 잃어버렸을 때.. 그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풍족하지도 않고 힘도 더 들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요. 당신도 그렇죠?

구영호 :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 ...그래도 당신 꿈이라 꼭 이뤄주고 싶었는데,

윤은주 : 사실 당신이 양장점 정리하자고 했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장점이 어떻게 보면 당신이랑 결혼하게 해준 이음줄인데, 속상했죠 많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이렇게 밭 일하면서 사는 것도, 양장점에 도둑이 든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당신이랑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양장점 하나 없어진다고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옆에 있는데 무얼 하든 행복할 수 있겠구나 했죠. 그래서 정리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당신 하나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거고. 이제는 집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끄떡없어요. 같이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고난을 견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거죠. 우리 처음 만날 때 생각나요?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데, 결혼까지 한 걸 보면 천생연분이 뭐예요 안 그래요? 우리 천국 가서도 천생연분으로 만나요.

구영호 : 그럼요 천국에서도 꼭 천생연분으로 만납시다.

암전

내레이션 : 양장점을 그만두고 난 후 한동안 절망 속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더 큰 위기들도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더 굳게 먹기로 했다.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기쁨이든, 위기든. 내 앞에 펼쳐질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면, 양장점을 잃음으로써 나와 영호 씨는 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별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찾은 일이 바로 밭일이었다.

밭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동생들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평생을 동생들을 키우고 동생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동생들을 걱정시키는 누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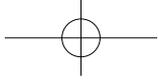
#5

빨래를 개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윤은주 : 어~ 은수야. 무슨 일이야?

윤은수 : 누나, 잘 살지? 아니 양장점 지나가다가 누나 생각나서 그렇지. 누나 어렸을 적에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집 안 형편도 안되니까.. 미안해 누나.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고. 하이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팔자 좀 피는가 했더니.. 하늘도 무심한지 그것도 홀라당 망해버렸잖아.



윤은주 : 너 그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한 거야? 양장점? 그게 언제 적 애긴데 지금 묻냐.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교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재밌어. 누나는 꿈은 못 이뤘어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 양장점도 해봤고, 하나님도 만났고 다른 무엇 보다 하나님 만난 거 그게 제일 큰 축복인 거야.

윤은주 : 그니까 누나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윤은주 : 그러고 있어. 매일매일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게 요즘 내 삶의 낙이다. 너도! 기도 좀 해 인마! 맨날 욕심만 부리면 잘 될 일도 안되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다 준비해주시겠거니 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누나는 양장점 그거? 속상하지도 않아. 다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거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오히려 누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마.

윤은주 : 그렇담 다행이고. 누나 들어가 쉬어. 나중에 또 전화할 테니까. 뭘 일 있음 연락하고~

윤은주 : 그래 너도 잘 살아,, 기도 매일하고 끊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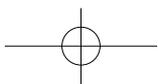
윤은주 : 어~들어가

윤은주 : (빨래를 개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서서히 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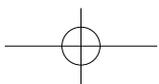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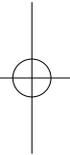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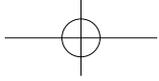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 Psalm 119 : 71 -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 시편 119편 71절 -



당신의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나요?
또 쉽게 열어주나요?

내가 당신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쉽사리 열어줄까,
노크 소리를 들을 수는 있을까 싶지만
오늘 난, 당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연극 문은
수많은 '나'들을 위한 연극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치사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문

부제: 치사한 사람들



연극 대상 소개

“

최소한 치사한 사람으 되고 싶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 中)

이름 : 김현수
나이 : 19살
관계 : 한 학생의 친구
취미 : 스키링
학력 : 고등학교 자퇴

현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단란하지 못한 가정 속에서 살아오며 많은 아픔들과 이별을 겪으며 자라왔다. 그 과정에서 빈번한 가출과 일탈 등으로 편견을 받고 살아왔으며 편견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짐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 먼저 호의를 밀어 내리는 성향을 가지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수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항상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남을 먼저 우선시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의리를 지키는 등 사람을 내적으로는 좋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Theme : ‘나’ 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로잡음으로써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삶을 그려본다.

치사하다

치사하다(恥事) - 행동이나 말 따위가 제제하고 남부끄럽다.

치사하다(致謝) -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한다.

Synopsis : 수현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해 열심히 번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얻는다. 그러다 장난기 많은 한 친구의 전화로부터, 본인은 알지 못하는 수현의 집들이가 시작되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아르바이트하다 만난 언니까지 여러 사람들이 수현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얘기가 나오고 즐거웠던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는다.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혼자 남은 수현에게 찾아온 불청객. 바로 어머니. 반갑지 않은 손님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Concept : 수현의 집들이

/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 수현.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며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다 보고 싶은 아버지를 회상하게 된다. 수현의 과거 이야기가 풀어지다, 절정인 순간에 엄마가 찾아오고 하강 시점에서 아버지가 찾아오시면서 마무리 된다.

기획의도 : 힘들고 지친 연극 대상의 삶이 보다 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다. 우리가 나아가면서 언제가는 마주하게 될 터닝포인트를 모아 연극으로 만든다. 그저 자신의 처지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연극이 되었으면 한다. 이로써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담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연극은?

: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교훈을 주는 연극.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현수(연극 대상)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극.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새로이 알게 되는 연극.

불완전한 가정으로 인한 비관적인 마음들을 치유해 주는 연극.

CASTING



김수현
박지원



나일갑
박예빈



이병을
임하연



한주병
임하연



문구정
허운진



최고심
김세연



고단혜
박예빈



김수로
오영화

연출 포인트

-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됨, 엄마와 과거 회상, 아버지와의 추억들

친구들은 툭툭 던지지만 깊이 있는 질문으로 수현이의 과거나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현이와 같은 아이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수현의 가정사를 보다 자세히 풀어내고 이에 대한 지금껏 느껴왔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한다.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가정의 확립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풀어준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대화는 가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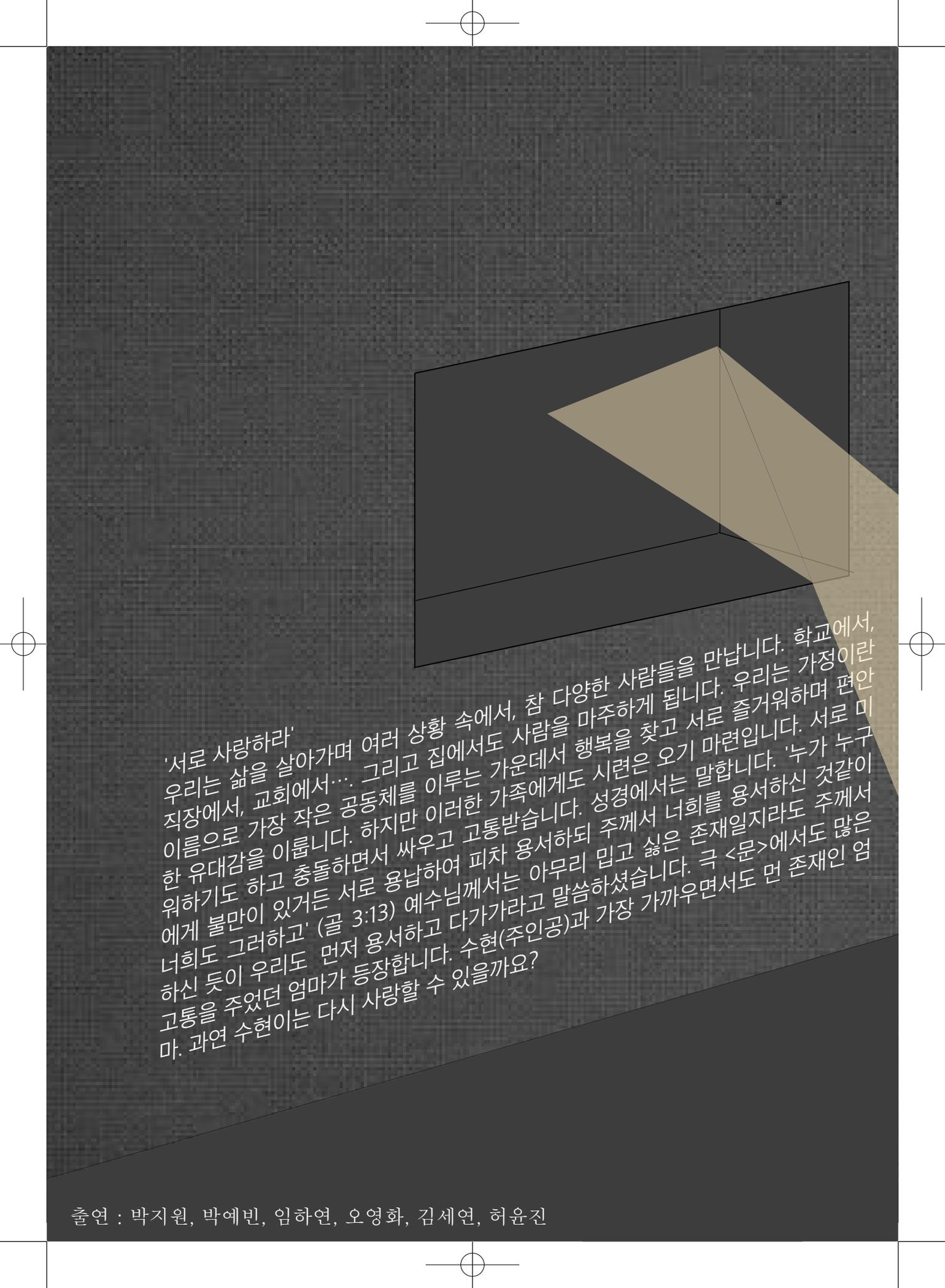
(어머니-아버지와의 대화 => 가정)

집에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다, 주인공이 집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는 정적과 빈 공간을 통해 대비되는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극 중 집의 ‘문’은 여러 인물들이 수현이의 집으로 들어옴에 따라,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치게 해주는 수단이다. 또 문은 수현이가 따뜻한 안식처인 집(가정)으로 들어가게 해주기도 한다.

아버지 ‘김수로’는 수현에게 삶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결국 수현이가 엄마를 찾아 문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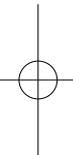
[수로]가 된다. 1. 물이 흐르거나 물을 보내는 통로. 2. 수현이의 길(路)이 되어준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 상황 속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란
이름으로 가장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서로 즐거워하며 편안
한 유대감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에게도 시련은 오기 마련입니다. 서로 미
워하기도 하고 충돌하면서 싸우고 고통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누가 누구
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골 3:13)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리 밧고 싫은 존재일지라도 주께서
하신 듯이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 <문>에서도 많은
고통을 주었던 엄마가 등장합니다. 수현(주인공)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인 엄
마. 과연 수현이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출연 : 박지원, 박예빈, 임하연, 오영화, 김세연, 허윤진

문



〈문〉 부제: 치사한 사람들 시스템(음향, 조명) Product Plan

연출: 임하연
음향: 김예원
조명: 김채영

- 조명 (4) 전체적인 집: 노랑
- 조명 (5) 전체적인 집 - 아빠와 대화: 하양
- 조명 (6) 단혜와 만남: 파랑
- 조명 (7) 쇼파 중점: 하양
- 핀조명 (8) 드럼 쪽 핀조명
- 핀조명 (9) 무대 중앙 핀조명
- 핀조명 (10) 집 입구 핀조명

장면	등장인물	연기 및 연출 포인트	음향	조명
#(1) 주인공의 전화 장면	김수현 (주인공)	극 시작 수현이 액자를 의자 위 에 올려둠	(없히고 2초 후) 전화 벨 소리, 80% → (전화 받 은 후) 0%	조명 (4), 100% / 핀조명 (8.9.10), 100%
#(2) 친구들 등장 (일갑, 병 을)	김수현 나일갑 (친구 1) 이병을 (친구 2)	수현, '청소할 사람이 나밖에 없지 뭐.' -> 7 초 후 수현, '택배인가?'	초인종 소리1, 50% 초인종 소리2, 70%	
#(3) 친구들 퇴장		수현, 문을 연 뒤 다시 닫음 병을, '와, 문 진짜 무 겁다.' -> 1초 후 일갑, '잘 있어라.' -> 1 초 후	초인종 소리3, 70% → 90% 문 열림, 70% 문 닫힘, 40%	

<p>#(4) 친구들 등장 (주병, 구 정, 고심) 릴스 촬영</p>	<p>김수현 한주병 (친구 3) 문구정 (친구 4) 최고심 (알바 언니)</p>	<p>수현, 청소 밀대 가지 고 쇼파 좌측으로 나옴 고심, '자 이제 찍는다 ~' 춤 춘 뒤, '아~' 라는 탄 식과 함께 구정, '역시 내 친구.' -> 5초 후 주병, '비켜봐' -> 2초 후 구정, '김수현! 잘 있어 라~'</p>	<p>초인종 소리, 70% (후) 릴스 노래 지글지 글, 90% 전화벨소리, 40% 문 열림, 70% 문 닫힘, 40%</p>	<p>(선) 조명 (4.8.9.10), 0% / 조명 (7), 100% 조명(4), 100%</p>
<p>#(5) 주병의 전화 친구들 퇴장</p>	<p>김수현 최고심</p>	<p>수현, '대체 뭐가 문제 인지 모르겠어요.' 한 숨 쉴 수현, 액자를 들고 쇼 파로 걸어 간다. 고심, '그런 게 아니었 다면 미안하구.' -> 1 초 후 고심, 문을 열고 나간 다. 수현, 의자 쪽으로 걸 어간다 수현, 액자를 바라본 뒤 2초 후 '아, 이제 다 갔네...'</p>	<p>문 열림, 50% / 문 닫힘, 20%</p>	<p>조명 (4), 0% / 조명 (8), 서서히 100% 조명 (8), 서서히 0% 조명 (4), 100% 조명 (8), 서서히 100% 조명 (8), 서서히 0%</p>
<p>#(6) 수현과 고 심의 대화</p>	<p>김수현 최고심</p>	<p>수현, '대체 뭐가 문제 인지 모르겠어요.' 한 숨 쉴 수현, 액자를 들고 쇼 파로 걸어 간다. 고심, '그런 게 아니었 다면 미안하구.' -> 1 초 후 고심, 문을 열고 나간 다. 수현, 의자 쪽으로 걸 어간다 수현, 액자를 바라본 뒤 2초 후 '아, 이제 다 갔네...'</p>	<p>문 열림, 50% / 문 닫힘, 20%</p>	<p>조명 (4), 0% / 조명 (8), 서서히 100% 조명 (8), 서서히 0% 조명 (4), 100% 조명 (8), 서서히 100% 조명 (8), 서서히 0%</p>

#(7) 단혜 침입	김수현 고단혜 (엄마)	수현, 마지막 대사 '고민할 시간에 짐정리나 마저 해야지' -> 10초 후 단혜, 집에 들어온다. 단혜,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감 수현, 단혜를 내보내며 실랑이	노크 소리 1, 80%	조명 (4) 0% + 조명 (6), 80% [오버랩] 조명 (7), 0% 핀 조명 (10), 서서히 100% 조명 (6), 50%
단혜 퇴장		단혜, 문을 열고 나감 문이 닫히며 '쿵' 소리와 함께	문 열림, 50% 문 닫힘, 100%	조명(6), 서서히 20%
수현 울분		수현, 소파 앞으로 나와옴		서서히 핀조명 (10), 0% + (오버랩) 조명 (7), 70%
수현 잠듦		수현, 구석에서 잠이 든다.		조명 (7), 서서히 50% -> 2초 멈춤 -> 서서히 20%
#(8) 수로 등장	김수현 김수로 (아빠)	수현이 잠에 들고 10초 뒤) (수현이 입구에 닿을 때 째) 수현, 문을 연다. 수현, 문 열며 '아무도 없네' 후 바로 수현, '아빠?' -> 3초 후	노크 소리2, 50% 문 여는 소리, 50%	조명 (6) 서서히 0% + (오버랩) 조명 (7), 서서히 50% 핀조명 (10), 100% / 조명 (7), 0% 핀조명 (8), 100% 조명 (5), 100%

		<p>수현과 수로는 쇼파 앞으로 걸어온다.</p> <p>수로, ‘아빠는 그래서 도망친 거야.’</p> <p>수로, ‘너의 전부를 쏠지 않았으면 해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p> <p>수현, ‘아빠 오늘 자고 가는 거지?’ 중 ‘아빠’ 후</p>	<p>(선) 고요한 노래, 서서히 10%</p> <p>고요한 노래, 서서히 0%</p> <p>수현 목소리, 50% -> 서서히 0%</p>	<p>핀조명 (8.10), 0% + (오버랩) 핀조명 (9), 100%</p> <p>(후) 조명 (5.9), 0% + (오버랩) 조명 (7) 100%</p> <p>서서히 암전</p>
	김수현	<p>수현, 잠에서 깨며 ‘아빠, 아빠!’ 후 ‘아빠!(3번째)’ 하며</p> <p>수현이 두리번 거린다.</p> <p>수현, ‘어릴 적부터 혼자였던 세상 속에서’ 대사 후 뒤를 돈다.</p> <p>수현, 벽을 짚고 쓸며 ‘이것 봐, 한 대...두꺼운 철문.’ 대사 후 쇼파 우측으로 일어나오며</p> <p>수현, ‘단칸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오길 바랐던 거야.’ -> 2초 후</p>	<p>수현 목소리, 원상복귀</p> <p>전화 벨소리, 70% -> (전화 꺼낸 후) 0%</p>	<p>조명 (7), (바로 켜지며) 80%</p> <p>조명 (4), 50%</p> <p>핀조명 (8), 100%</p> <p>핀조명 (10), 100%</p> <p>핀조명 (8.10), 서서히 0% / 조명 (7), 0% / 핀조명 (9), 1초 후 100%</p>

수현의 전화		<p>수현, '치사한 건 그들이 아니라... 나왔네.' -> 3초 후</p> <p>수현, '여보세요...네네.'</p> <p>수현, (입구에 닿을 때 째)</p> <p>수현, 문 앞에 선다.</p>	<p>전화 벨소리, 70% -> (전화 꺼낸 후) 0%</p> <p>(후) 노래 '나의가족', 20% -> (17초 후) 서서히, 50%</p>	<p>(선) 조명 (4), 서서히 80%</p> <p>핀조명 (10), 서서히 70%</p> <p>조명 (9), 서서히 0%</p>
수현 퇴장		<p>수현, 문을 열고 나선다.</p> <p>수현이 무대를 벗어나고 3초 뒤</p>	<p>문 열림, 100%</p> <p>문 닫힘, 100%</p>	<p>핀조명 (10), 서서히 0% / 조명 (4), 20% -> (5초 후) 서서히 0%</p>

(문) 부제: 치사한 사람들 동작, 동선 Produc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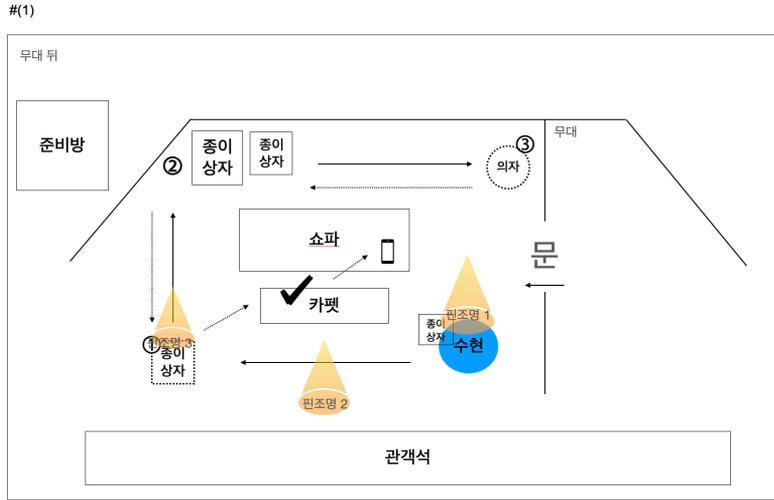
[조명] 하우스 조명 100%
 ③ 동작 끝난 뒤,
 [음향] 전화벨소리- 신데렐라, 80% → (전화 받은 후) 서서히 '사방사/방' 0%

등장 → ① → ② → ③
 : 집 정리(종이 상자)

전화벨 ③ → ② → ① →
 카펫 : 핸드폰 찾기

카펫에서 전화벨, '구박을'
 : 넘어지기 → (관객 바라보며) 음소거 고통 / '사방사':
 '여보세요?'
 → 어깨로 전화 받기

'어 이병을.' → 손으로 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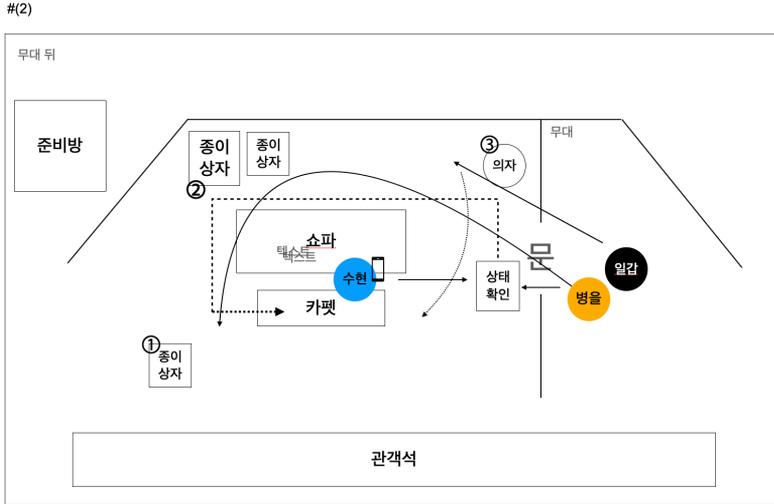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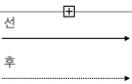
병을, 등장 → ③ → ② → ① / ①에서 기웃거림

일갑, 병을 뒤따라가며 ③ 옆 벽 두드리고 먼지 쓸기 등 집 살피기

일갑, 수현의 '주수도 안 알려... 온 거야?' 대사 후 수현을 향해 걸어감 → 소파 우측

일갑, '토 나온다 진짜.' 대사 후 소파 우측 가장자리에 착석

수현, 병을을 카펫 좌측에 앉힌 뒤, 벽쪽에 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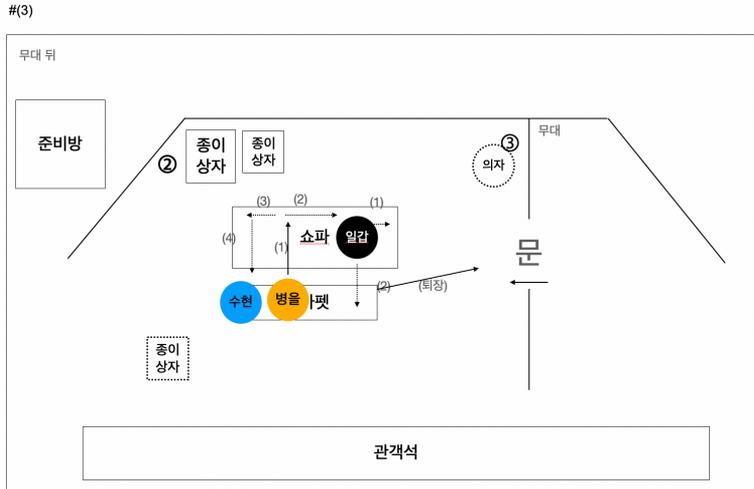
병을, (장수 대화) '..몰라?' 후, 소파 좌측으로 올라가 드러누움 → 일갑, 발로 툭툭 찌

일갑, '지금도 징그럽게 살 맛 대고 있어야 하는데.' 후, (일갑 기준) 왼쪽으로 한 칸 이동 → 병을, 따라 움직임

병을, 일갑의 '근데 니 걱정이 나 해~ 라는 말에 빠진 채로 바닥으로 내려감 → 일갑 따라 내려가 카펫 우측 착석

일갑, 병을 퇴장 시 소파 좌측으로 들어가 현관으로 감

병을, 어렵게 문을 열고 일갑과 퇴장



〈물 / 부제: 치사한 사람들〉_대본

대본: 박예빈, 박지원, 임하연

등장인물

김수현 20 / 박지원

친구 1: 나일갑, 여 20 / 박예빈

친구 2: 이병을, 여 20 / 임하연

친구 3: 한주병, 여 20 / 임하연

친구 4: 문구정, 여 20 / 허윤진

알바 언니: 최고심, 여 23 / 김세연

어머니: 고단혜, 43 / 박예빈

아버지: 김수로, - / 오영화

수현의 집

1장

작은 단칸방을 얻은 수현. 막 이사해 어지럽게 놓인 짐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수현 : 여보세요? 어, 이병을. 나? 지금 좀 바쁜데. 뭐, 아 안돼 나 할 거 많아. 그거는 네가 알 거 아니고. 아... 신경 쓰지 마. 그냥 뭣 좀 정리하고 있어. 별거 아니야. 야, 나도 정리는 하고 살아..!
아 있어 요새 방 옮겨가지고... 뭐 거의 내가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잖니? 그거 한 번도 안 쓰고 다 모았지. 요즘 나 술도 안 먹잖아. 야, 너 이거 또 말하고 다니지 마라. 아 너네 오면 더러워지니까 그렇지! 어차피 너 와도 문 안 열어 줄 거야. 어~ 끊어 어~ 난 안 사랑해~

수현 : 아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짐이 이렇게 많냐... 안 그래도 작은 집 더 작아 보이게. 그래도 뭐 독립이니까. 청소할 사람이 나밖에 없지 뭐.

[초인종 소리]

수현 : 뭐야? 설마...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

일갑, 병을이 요란하게 수현을 부른다.

수현 : 아니, 오지 말라고 주소도 안 알려줬는데... 진짜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일갑 : (비웃는 듯이) 쟤리 봤지~ 야, 애 겁나 놀란 듯.

병을 : 뭐야, 내 미모를 보고 놀란 거야?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지...

일갑 : 토나온다 진짜.

수현 : 하... 됐고, 민원 들어오니까 빨리 들어와 그냥. 시끄러워 진짜.

일갑 : 이런 데에 또 사람이 살긴 사네?

병을 : 야, 그런 말 하지 마. 됐고 수현아, 내가 뭐 가져왔게? (술병을 달그락거린다) 집들이면 한잔 해야지!

수현 : 야, 나 이제 술 안 마셔. 넣어둬.

병을 : (비웃으며) 뭐래, 이거 공짜야. 누가 돈 내래?

수현 : 넌 뭐 공짜면 다 먹냐? 난 관심 없어. 그렇게 소중한 술 너네끼리 드세요.

병을 : 아니 왜? 벌써 건강 챙기는 거야 설마?

수현 : 네네, 무병장수하겠습니다.

일갑 : 이미 늦었어 인마.

병을 : 진짜 안 마셔? 가짜 이슬인데... 아 마시자!

수현 : 진짜 왜 이러실까? 나 진짜 안 마신다고 몇 번을 말해. 이따 너네끼리 마시라니까? 아니다, 너네도 그냥 먹지 말고 같이 장수나 할래?

일갑 : 아 미안. 난 장수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병을 : 야, 그래도 세상은 오래 살고 봐야 하는 거겠어.

일갑 : 누가 그러디?

병을 : ..몰라?

병을, 바닥에 드러눕고 일갑은 방을 둘러본다. 수현은 과자 봉지 하나를 뜯으며 앉는다.

일갑 : (병을을 툭툭 차며) 야야, 좁아. 눕지 마. 앉아 줘! 하여튼 눕는 거 참 좋아해요. 김수현 너는 한 30평은 구

할 것처럼 공장 다니더니, 야, 이거 기지개는 켤 수 있냐? 아니다, 기지개는 무슨,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

수현 : (코웃음 치며) 야, 니같이 궁전 같은데 살면서 내놓은 자식 취급 받을 바엔 차라리 제 발로 나와서 이런 쥐구멍 같은데 사는 게 낫지.

일갑 : 아, 아파. 뼈 맞았어. 순살 됐어.

병을 : 아니 근데 여기 찾기 진짜 힘들었어...

일갑 : 그니깐. 찾아오는데 사람 사는 데가 맞는 건가 싶었다니까.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웃긴 건 문은 또 안 어울리게 겁나게 튼튼한거야.

병을 : 맞아, 문 두드리면 들을 수는 있나 싶더라?

일갑, 병을이 크게 웃는다.

수현 : 일 절만 하지? 그래도 엄마가 있는 그 집보다는 백배 낫거든?

병을 : 그건 맞네. 그래, 엄마로부터 탈출한 소감은?

수현 : 좋지.. 좋아. 이제 그 술주정 안봐도 되고.. 음...뭐... 너네도 다 알잖아. 우리 엄마 어떤지.

일갑 : 그래, 저번에 나 진짜 소름 돋았잖아. 좀 욕하시긴 해도 우리한테 잘 챙겨주시길래 친절하신 줄 알았는데...

병을 : 아~ 맞아 맞아, 우리 나가자마자 너한테 욕하는 거 듣고 진짜... 우리가 괜히 갔나 싶더라. 괜히, 어? 막 미안.. 해지고!!

일갑 : 너나 나나 이럴 때 보면 부모님 없는 애가 제일 부러워.

병을 : 야. 난 또 왜 건드려.

일갑 :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야 근데 그래도 딸이 독립했는데 뭐라도 안 해주시든?

수현 : 야, 너 몰라서 묻냐? 나 완전히 연 끊으려고 독립한 거야.

일갑 : 하긴, 여기 뭐 들여놓을 자리도 없어 보이긴 한다. 지금도 징그럽게 살 맞대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일갑이 병을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병을은 일갑을 따라간다.

병을 : 근데 그래 놓고 한 달 만에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 하는거 아니고?

수현 : 선 넘지 마라. 그냥 알바를 뛰고 말지. 근데 왜 아까부터 자꾸 가족 얘기하면서 기분 잡치게 하나?

병을 : 아니, 벌써 독립한 게 부러워서...그렇지..뭐

일갑 : 야 재 벌써 그 뭐냐, 보육원에서 쫓겨날 때 준 돈 벌써 다 써먹어서 그래. 니가 이해해라.

병을 : 그렇게 불쌍하면 니가 좀 주던가.

일갑 : 나도 없어. 그 사람들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쓰는 거 알잖냐. 나 거의 하숙생이라니까? 진짜 잠만 재워준다고. 웃기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수현 :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을 하던가. 나처럼 돈이라도 벌어야.

일갑 : 나도 너 같은 상황이면 돈을 벌었지. 아니다, 나도 그냥 독립을 할까?

병을 : 야, 김수현 꼬박 3년을 일해서 이 조그마한 집 얻은 거 안보이나. 넌 모아둔 돈도 없잖아. 하여튼 공주님 납셨다. 지금이라도 알바를 뛰든가. 그래야지 어디 남친 사귄 수 있지 않겠니?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일갑 : 걱정 감사요. 근데 니 걱정이나 해~

병을과 일갑은 쇼파에서 내려온다.

수현 : 하...결혼이고 뭐고 우리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난 자신 없다. 그래도 우리 아빠 생각하면 나도 아빠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 너네는 꿈꾸는 가정 같은 거 없냐?

병을 : 있지. 예쁜 여자?

수현 : 아니...지금 이상형을 묻은 게 아니잖아.

병을 : 장난이고, 진짜 있어...돈 많은 여자?

일갑 : 넌 진짜 금쪽같은 내 새끼다. 내 새끼야 정말. 재 지금 진지한 거 안 보이냐?

(약간의 정적)

병을 : 음. 아 뭐. 꿈꾸는 가정보다는...만약 자식이 생긴다면 나처럼만 안 컸으면 좋겠어. 부모도 친척도 없이 무연고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은 너네 같은 친구라도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사실 뭐 가족이 있어본 적이 있어야지. 난 이상적인 가족이 뭔지도 모르겠다.

일갑 : 그럼 너도 무병장수해야겠네. 야, 근데 부모 있어도 다를 거 없어. 나 봐...뭐, 다 내 업보긴 하지만. 그래, 태어난 게 잘못이겠지. 부모가 잘 나가는 게 나한테는 독이야. 내가 자기들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완전 버려졌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자식도 수단이고 도구인 거지. 게다가 이제 성인 됐다고 잠만 재워줬던 것도 이제 못하게 생겼다니까? 맨날 눈치 쥐. 근데 뭐 어찌겠나. 그냥 눈치 없는척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그래, 너 말이 맞네 김수현. 궁전 같은 데서 그렇게 살 바에는 이런 쥐구멍에 사는 게 낫네.

수현 : 오바하기는. 분위기 처지게 할 거면 방 청소나 해라.

병을 : (뜸 들이며) 여기 청소한다고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나 약속 있을 예정임.

수현 :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약속 있을 예정이라는 건 또 뭐냐?

일갑 : 오, 나도 그 약속 뭔지 알 것 같아.

수현 : 어휴, 기대하지도 않았어. 싸게 나가라 그냥.

병을이 문을 열려 시도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다.

병을 : 네~ 네~ 가겠습니다. 와, 문 진짜 무겁다.

일갑 : 호들갑 좀 그만 떨어. (문을 짚는다) 오우.. 장난 아니네.

병을 : 야, 내가 뭐랬어. 김수현, 우리 간다.

일갑 : 잘 있어라.

일갑, 병을 퇴장.

수현 : 에휴, 귀여운 자식들. (일어나면서 몸의 먼지를 털며) 자! 빨리 청소나 하자.

주병, 구정, 고심 등장.

[초인종 소리]

수현 : 뭐야! 누가... 또 이병을인가?

구정 : 수현 안녕!

고심 : 언니 왔드아~

주병 : (휴지를 건네며) 야, 집들이 선물.

수현 : 애넌 또 뭐야...? 고심 언니는 어떻게 만난 거야?

주병 : 이병을이 너 이사했다고 말하고 다니던데?

수현 : 하...

구정 : 야야, 수현! 새 집에서는 릴스 한 번 찍어줘야지! 나랑 주병쓰는 10분 있다가 가야 하니까 얼른 찍자!

고심 언니! 우리 좀 찍어주세요.

수현 : 이렇게 갑자기...? (내심 좋아하며) ...쿨!

구정 : (수현과 주병에게 문신 팔토시와 선글라스를 건네며) 이거 빨리 꺼!

주병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팔토시와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수현 : (떨떠름하게) 와... 이게 뭐야. 하다하다 문신 팔토시까지 들고다녀?

주병 : 넌 안 꺼?

구정 : (겉옷을 벗고 문신 팔토시를 드러내며) 에이~ 이건 기본 아니냐~

주병 : 저런.

수현은 싫은 내색을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신나게 팔토시를 낀다.

고심 : 어우 야. 요즘 애들은 이러고 노는 거야? 세대차이 봐. 자 이제 찍는다~

수현과 주병, 구정은 함께 유행하는 비디오를 찍는다. 지글지글

구정 : (촬영 영상을 돌려보며) 진짜 역대급인데? 근데 배경이 좀 아쉽긴 하다. 뭐, 췌든 업로드 완료!

주병 : 에휴, 진짜 릴스 중독이다.

고심 : 너가 제일 열심히 추던데?

(수현과 친구들이 웃는다.)

주병 : 야, 다리 아프다. 이제 좀 앉자.

구정 : 와, 사람들 사는거 진짜 갓생이다. 난 언제 이렇게 살아보냐.

수현 : 왜? 뭔데?

주병 : 또 명품 자랑하는 거겠지 뭐.

수현 : 한 번 보자. 와...구찌... 야 이거 알바 2달 뛰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정 : 근데 알바하면서 구찌백 들고 다니는 건 좀 웃기지 않나?

수현과 친구들이 크게 웃는다.

수현 :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언제 진짜 산다 그랬냐?

주병 : 알아, 알아. 근데 여기 좀 좁긴 하다. (구정과 조금 떨어지며)나 애랑 이렇게 붙어있기 싫은 데.

구정 : 어이없네. 그래도 난 너가 좋아~~(주병에게 찰싹 붙는다)

고심 : 어휴, 귀엽다 귀여워. 근데 너네는 알바하는거 이렇게 노는 거 말고 뭐 하는 거 없어?

구정 : 우리 주병이는 대학생인데요.

고심 : 아, 맞네! 주병이 대학 합격 축하해!

주병 : 어? 어떻게 아셨어요? 감사합니다~

구정 : 맞아요. 의외로 멀쩡한 친구예요.

수현 : 그러면 뭐 나는 멀쩡하지 않다는 소리야?

구정 : 어, 나도 포함이야.

고심 : 근데 그 버너대면 연예인 송강도 다니는 데 아니야?

주병 : 맞아요.

수현 : 어 송강호? 미쳤다 나 기생충 엄청 많이 봤는데 겁나 부럽다.

주병 : 어..? 송..송강..호?

(구정, 고심 크게 웃는다.)

수현 : 왜? 왜! 아 문구정! 왜 웃는데? 언니, 왜 웃는데요?

구정 : 야 요즘 탑스타야. 송강 모르면 간첩인거 몰라?

수현 : 뭐, 알아야 돼?

구정 : 무식하긴, 맨날 그렇게 알바를 뛰니까 모르긴 하겠네. 그리고 보니까 이 집 기생충에 나왔던 반지하 집이랑 비슷하네~! 너 이런 집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사니?

주병 : 그래도 문은 튼튼한 것 같던데? 여기 갇히면 119 신고해서 열어야 될 듯.

고심 : 어우, 야 진짜 정신없다. 갑자기 송강에서 여기까지 오냐. 이제 너네 스무살인데, 하고 싶은 일 없어? 주변 동생들 보니까 스무살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들던데. 나도 그랬었고.

구정 : 잘 모르겠는데요. 팔로워 더 늘리기? 협찬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던데.

고심 :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더 의미 있는 일 있잖아. 너네 어렸을 때 꿈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았어?

수현 : 있었죠. 경찰관.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서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이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더라구요.

고심 : 그럼 지금은 되고 싶은게 없는 거야?

수현 : 하루 별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되고 싶은 직업은 없지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대단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덕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정 : (수현의 말을 끊고 들어오며) 저는 아이돌..? (구정이 관객을 보며 엔딩요정 포즈를 한다.) 어때? 좀 아이돌같지 않냐?

주병 : 넌 아이돌 했으면 논란이 너무 많지 않겠니...?

고심 : 하하. 너는 뭐 하고 싶었는데?

주병 :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요. 꿈 가져봤자 뭐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러던데.

고심 :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

주병 :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미술이 있으니까 아마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구정 : 음~멋있어~ 역시 내 친구.

[전화벨 소리]

주병 : (전화를 받으며) 어, 지금 갈게. 잠깐 친구 집들이 왔어. 이제 나가려고.

구정 : 수현! 잘 있어. 또 올게. 다음에 보자! 언니도 다음에 또 빼요!

주병 : 잘 있어. 연락할게. 안녕히 계세요 언니.

구정 : 다음엔 수현이네서 파자마 파티 하는 걸로?

주병 : 야, 집도 좁은데 김수현 부담주지마.

구정 : 아...그런가?

수현 : 아냐, 그거 뭐 하면 되는거지. 다음에 하자. 잘가라.

고심 :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애들아.

구정이 문을 열려 시도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다.

구정 : 어? 이거 문이 안 열려!

주병 : 비켜봐. 아오 (문을 힘겹게 열며) 이게 집이냐? 야, 우리 간다.

구정 : 김수현! 잘 있어라~

고심과 둘만 남게 된 수현.

수현 : 아, 힘들다. 언니도 기 빨리죠?

고심 : 약간? 근데 난 오랜만에 이렇게 노니까 재밌어. (3초 정적) 너 나랑 하는 알바는 이제 그만 두는 거야?

수현 : 거기가 집에서 조금 멀어서 집 근처로 다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고심 : 아쉽네. 그래도 종종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자.

수현 : 그래요.

(정적)

수현 : 근데 대학...가야 되겠죠?

고심 : 에이, 안 가도 상관없어. 다니고 있는 나도 왜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매일 기다리는게 공장, 종강. 이거 두개야.

수현 : 사실, 이제 뭐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다들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데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열아홉에서 스무살로 숫자만 바뀌었을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고심 : ...아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럼 너는 너 꿈을 다 이룬 거 아니야? 비록 작더라도 수현이 너의 집이 있고, 알바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수현 : 그렇네요. 근데 왜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진짜 어른처럼 멋지게 좀 살고 싶은데 대학도 안 나온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기는 할까 싶죠. 현실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이 더 기회가 많잖아요.

고심 : 그래도 세상엔 다양한 길이 많아. 너가 필요한 곳이 있을거야. 더 고민을 해봐.

수현 : 고민은 많이 했죠. 근데 대학에 간 애들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병이 개 봐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긴 했으니까...뭔가 안전한 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고심 :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지. 나도 그럴 것 같아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수현 : 저도 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저는요, 제 또래들이 하는 평범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맨날 어떻게 먹고 살지, 가출하면 오늘은 어디서 자지 하는 갈잡은 고민 말고요. 근데 자는 고민은 해결이 됐네요. 집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건 왜일까요? 저는요, 애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요, 가족이랑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소소한 생일파티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평범한 건 커녕 괜히 양아치같다고 시비털리고, 독립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적)

땅만 바라보는 둘. 그러다 수현은 천천히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로 시선을 옮기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본다.

수현 : 있었죠. 경찰관.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서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이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더라구요.

고심 : 그럼 지금은 되고 싶은게 없는 거야?

수현 :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되고 싶은 직업은 없지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대단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덕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정 : (수현의 말을 끊고 들어오며) 저는 아이돌..? (구정이 관객을 보며 엔딩요정 포즈를 한다.) 어때? 좀 아이돌같지 않냐?

주병 : 넌 아이돌 했으면 논란이 너무 많지 않겠니...?

고심 : 하하. 너는 뭐 하고 싶었는데?

주병 :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요. 꿈 가져봤자 뭐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러던데.

고심 :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

주병 :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미술이 있으니까 아마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구정 : 음~멋있어~ 역시 내 친구.

[전화벨 소리]

주병 : (전화를 받으며) 어, 지금 갈게. 잠깐 친구 집들이 왔어. 이제 나가려고.

구정 : 수현! 잘 있어. 또 올게. 다음에 보자! 언니도 다음에 또 빼요!

주병 : 잘 있어. 연락할게. 안녕히 계세요 언니.

구정 : 다음엔 수현이네서 피자파티 하는 걸로?

주병 : 야, 집도 좁은데 김수현 부담주지마.

구정 : 아...그런가?

수현 : 아냐, 그거 뭐 하면 되는거지. 다음에 하자. 잘가라.

고심 :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애들아.

구정이 문을 열려 시도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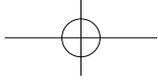
구정 : 어? 이거 문이 안 열려!

주병 : 비켜봐. 아오 (문을 힘겹게 열며) 이게 집이냐? 야, 우리 간다.

구정 : 김수현! 잘 있어라~

고심과 둘만 남게 된 수현.

수현 : 아, 힘들다. 언니도 기 빨리죠?



고심 : 약간? 근데 난 오랜만에 이렇게 노니까 재밌어. (3초 정적) 너 나랑 하는 알바는 이제 그만 두는 거야?

수현 : 거기가 집에서 조금 멀어서 집 근처로 다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고심 : 아쉽네. 그래도 종종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자.

수현 : 그래요.

(정적)

수현 : 근데 대학...가야 되겠죠?

고심 : 에이, 안 가도 상관없어. 다니고 있는 나도 왜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매일 기다리는게 공장, 종강. 이거 두개야.

수현 : 사실, 이제 뭐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다들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데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열아홉에서 스무살로 숫자만 바뀌었을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고심 : ...아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럼 너는 너 꿈을 다 이룬 거 아니야? 비록 작더라도 수현이 너의 집이 있고, 알바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수현 : 그렇네요. 근데 왜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진짜 어른처럼 멋지게 좀 살고 싶은데 대학도 안 나온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기는 할까 싶죠. 현실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이 더 기회가 많잖아요.

고심 : 그래도 세상엔 다양한 길이 많아. 너가 필요한 곳이 있을거야. 더 고민을 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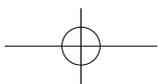
수현 : 고민은 많이 했죠. 근데 대학에 간 애들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병이 개 봐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긴 했으니까...뭔가 안전한 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고심 :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지. 나도 그럴 것 같아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수현 : 저도 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저는요, 제 또래들이 하는 평범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맨날 어떻게 먹고 살지, 가출하면 오늘은 어디서 자지 하는 갈잡은 고민 말고요. 근데 자는 고민은 해결이 됐네요. 집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건 왜일까요? 저는요, 애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요, 가족이랑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소소한 생일파티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평범한 건 커녕 괜히 양아치같다고 시비털리고, 독립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적)

땅만 바라보는 둘. 그러다 수현은 천천히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로 시선을 옮기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본다.



고심 : (조심스럽게) 아버지 많이 보고 싶니?

수현 : ...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가서 두려워요. 사진으로 아빠 얼굴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아빠의 목소리, 아빠의 냄새, 아빠의 표정 이렇게 잊혀진다는게...

고심 : 음, 있잖아 수현아, 아빠에 대한 것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야. 시간이 지났으니 자연스러운 일인거지. 그래도 아빠와의 추억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너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잊혀져가는 걸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 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청년이니까.

수현 : 언니 그거 되게 경험담처럼 들리네요.

고심 : 하하, 들켰네. 나도 너랑 비슷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그래도 아빠와의 관계도 좋아서 잘 지내긴 했지만 난 계속 엄마라는 과거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걸 스무살이 다 되어서야 알았지. 처음엔 인정하기가 힘들었어.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게 나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지.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엄마한테 미안해지더라?

수현 : 왜요? 엄마를 잊어야 하니까요?

고심 :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한 것 같아서. 사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길 바라잖아. 그걸 간파하고 있었던 거지. 엄마는 누구보다 나의 행복을 바랐을텐데 내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었잖아, 스무살이 다 되었는데도 10살 어린아이를 보내주지 못했던 거야.

수현 : 아...

고심 : 아이, 참. 이제 다 지난 이야기야. 괜히 숙연해질 거 없어. 난 그냥 너는 그 후회를 좀 덜 했으면 해서...! 그런게 아니었다면 미안하구.

수현 : 하하, 괜찮아요. 언니, 뭐라도 드실래요? 애들이 가져온 과자 있는데.

고심 : 어? 아니야! 나 이제 알바 가야 해서 일어나봐야 할 것 같아. 너 많이 먹어. 자취생이 먹을 게 어딴다고. 반찬 필요하면 말해! 나 요리 꽤 잘해. 알지?

수현 : 어...그랬나요? 하하, 알겠습니다 언니! 그럼 조심히 가세요.

고심 : 어, 그래. 조만간 또 보자.

고심이 킁킁거리며 문을 열고 나간다.

수현 : 아, 이제 다 갔네..(집안을 둘러보며) 진짜 좁다. 내일은 뭐하지? 애들이랑 놀러나 갈까? (바닥에 털썩 앉으며) 이제 청소나 좀 해봐야겠다. (수현이 바닥을 박박 닦는다.) 어휴, 뭐가 이렇게 더럽냐. 애들말대로 청소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 (수현이 집안 구석구석을 우스꽝스럽게 박박 닦는다.)

아이고야..힘들다. 코딱지만한 집인데도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래도 진짜 내 집이다.

좋은 소리! 근데 왜 자꾸 뭔가를 해야할 것 같나... 독립했으니 이제 끝인데. 이제 스무살이라서, 어른이라서 그냥 좀 싱숭생숭한건가..? 에이, 모르겠다. 고민할 시간에 짐정리나 마저 해야지.

2장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

수현 : 뭐지? 올 사람이 이제 없을텐데... 고심 언니가 뭐 두고 갔나?

[다시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

수현 : 아... 네, 언니 나가요!

수현이 문을 열자 술에 취한 단혜가 들어온다.

단혜 : 야,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수현 : (병찌 있다가) 하...왜 왔어? 여긴 어떻게 알고 온거야? 아, 술냄새.

단혜 :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무슨 소리야? (벽에 손을 짚고 기대며) 엄마가 딸 자취방 아는게 잘못이니?

수현 : 나 엄마랑 연 끊는다 했잖아. (난입하는 단혜) 아, 들어오지 말라고.

단혜 : 여기 찾는 거 쉽지 않더라. 여기 사람 사는데는 맞니?

수현 : 집 얻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단혜 : 그래도 엄마가 왔는데 물이라도 한 잔 줘 봐.

수현 : 그렇게 술 때문에 가족 속 썩였으면 됐지 또 술먹고 찾아와서 왜 이리 당당한건데?

단혜 : 그러는 너는 딸이 돼서 엄마한테 부모랑 연 끊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나?

수현 : 하...됐어.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그렇게 원하는 물 한 잔 줄테니까 마시고 빨리 나가.

단혜 : 싸가지 하고는...나 자고 갈거야.

수현 : 그냥 이거 마시고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 잘 곳은 없어.

(드러눕는 단혜. 수현은 단혜를 일으키고 물컵을 쥐어주며 실랑이를 벌인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물컵이 엎어진다.)

수현 : (단혜의 다리를 툭툭 치며) 발 좀 치워봐. 아 치워보라고. (단혜가 들은 체 하지 않자 닦는 도중에 걸레를 던지며)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건데! 내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 때리고 욕했잖아. 그거 다 내가 싫어서 그런거 아니야? 그래서 나왔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왜 맨날 난 엄마 술주정 받아줘야 해? 나도 다른 평범한 애들처럼 엄마, 아빠랑 수다도 떨고, 여행도 가고, 또 학원도 다니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 근데 제발 오늘 하루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집에 더 이상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온 게 너무 속상하고 비참해.

독립한 지금도 다들게 없어. 하루 하루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엄마는 이런 나를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어? 없겠지. 있었다면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엄마가 조금이라도 가족을 생각하고 돌봤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거야. 다 엄마 때문이라고. 술 사 먹을 시간에 나를 한번 더 돌아볼 생각은 안해봤어? 맨날 맞는게 무서워서 가출하고, 그것마저도 지쳐서 그냥 엄마한테 맞기만 했던 나를 알기나 해? 가출했던 날에 비상계단에서 잤을 때 정말 딱 죽고 싶더라. 살다 살다 이제 잘 곳도 없어진 나를 보면서 독립하겠다고 마음 먹은거야. 여긴 내 공간, 내 집이야!! 진짜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단혜 : (쏘아붙이며) 그래, 너 말 잘했다. 나도 이 꼬라지로 오고 싶었겠어? 내가 너한테 엄마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온 줄 아냐고... 그래 이럴줄 알았어... 맞아.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지. 너도, 너희 아빠도. ... 몇번을 문 앞에서 두드릴까 말까 했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 (오열)

수현 : 이제와서 나보고 뭐 어찌라고, 동정이라도 받고 싶어서 찾아온거야? 됐고 빨리 나가, 엄마가 제발로 나가지 않으면, 난 신고를 해서라도 내보낼거야. 안 그래도 술 취한 사람이니까 잘 됐네.

단혜 :

느릿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단혜를 수현은 문으로 떠밀듯이 내보낸다.

수현은 단혜를 내보내고 문을 굳게 잠근다.

문을 닫은 후 수현은 문고리를 붙잡은 채 주저 앉아 운다. 수현은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운다.

수현 : 아...머리 아파.

수현은 걸레를 정리한다. 그 후 쇼파 앞에서 쭈그려 앉아 잠에 든다.

정적. 조명이 살짝 어두워진다.

3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깬 수현은 천천히 일어난다.

문을 열지만 아무도 없다.

수현 : (문 밖을 둘러보며)...뭐지?

수로, 수현의 뒤에서 수현을 부른다.

수로 : ... 수현아.

수현, 흠칫 놀라며 뒤돌아본다. 아빠를 발견한다.

수현 : ... 아빠?

수로, 땅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은 뒤 수현에게 다가간다.

3초 뒤 조명 색깔이 바뀐다.

수로 : 독립 축하해, 수현아. 우리 야무진 딸. 기특하다.

수로, 수현에게 꽃다발을 건넨다.

수현 : 아빠 집들이 온거야? 이거 꿈 아니지? 어떻게 알고 왔어?

수로 : 그 있잖아, 일론이? 나일론? 그 친구가 말해주더라.

수현 : 일론..? 아, 일감이~ 아이, 아빠! 일론이가 뭐야! 나일론이라니!

(서로를 바라보고 정겹게 웃으며 쇼파에 앉는다.)

수로 : 잘 지냈어? 요즘 별 일 없고?

수현 : 늘 똑같지. 방금 전에도 엄마가 와서 한바탕 했어.

수로 : 미안하다. 아빠가 있어줘야 했는데.

수현 : ...아냐.보고싶었어 아빠.

수로 : 우리 딸 이제 성인 됐으니까 아빠가 딸 면허 따는 것도 도와주고 해야하는데!

수현 : 아 맞네. 성인되면 같이 운전 연습하기로 했으면서. 결국 약속도 안 지키고... 치사해 정말.

수로 : 하하. 미안해, 딸. 아빠가 좀 바빴어. 요즘 뭐 힘든 일은 없고?

수현 : 힘들다기보다는 이상해. 엄마한테 도망쳐나와서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독립에 관해서 떠들러 와서 그런가? 난 분명히 내 독립이 잘한 일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

수로 : 그래, 당연한거야. 네 모든 노력이 만든 독립이니까... 그나저나 아직도 엄마는 화가 많나보네. 요즘도 엄마가 술 마시든?

수현 : 엄청 마시지. 술먹는 하마인줄.... 아까도 어떻게 알았는지 술 취한 채로 여기로 막 와서 깽판 쳤어. 그래서 엄청 화내면서 쫓아냈지. 그동안 참느라 한번도 못한 말들도 다 해버렸어.

수로 : 그래? 뭐라고 했는데?

수현 : 한 번이라도 엄마가 가족을 생각했다면 우리 가족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싶었어. 나는 엄마와 함께 살아오면서 대단한 걸 바라게 아니었거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만 꿈꿔왔는데 그것마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웠어. 그런 말들이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멈추지 않더라고 ... 그래도 아빠가 있었을 때는 추억이 그나마 있었어서 좋아.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오이도랑 대부도 가서 놀았던 거. 그때 나 처음으로 갈매기한테

'유기농 쌀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건강하고 맛있게 만든 담백한 어니언 라이스칩' 도 (과자도 쥐보고 주고 했잖아. 그때 아빠가 갈매기한테 머리 뜯길 뻔해서 진짜 웃겼는데.

수로 : 하하. 근데 그 갈매기들 '달콤한 별꿀과 고메버터의 풍미가 더해진 허니버터칩' 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

수현 : (까르르 웃으며) 아 맞다맞다. 그랬지! 아빠 다 기억하네! (과자들을 다시 박스에 집어넣는다)

수로 : 그럼, 우리딸이랑 같이 간 여행이었잖아. 아빠가 더 함께 하지 못해서 그게 아쉽다. 아빠가 더 데려다 주고 싶은 멋있는 곳들이 아직 많은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즐겁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수현 : 잘 지낸다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사는거지. 그나저나 아빠, 아빠는 스무살 됐을 때 어땠어?

수로 : 당연히 너처럼 힘들었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니까 정말 막막 하더라고. (2초 뜸들이며) 무엇보다 그런 상황을 마음놓고 터놓을 사람이 없었다는게 많이 힘들었어.

수현 : 역시 나랑 비슷하네... 나는 십대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내 목표인 독립을 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내 목표를 이루고 또 더 많이 남은 나날들을 보니까, (한숨 쉬며) 독립을 이루기 전보다 더 막막하고 공허해진 것 같아.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알아서 될 줄 알았거든.

수로 : (정확히 수현을 바라보며) 그래서...도망친거야?

(수현은 수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채로 답을 못한다. 정적이 흐른다.)

수로 : (천장을 바라보며) ...아빠는 그래서 도망친거야.

수현 : ...뭐가?

수로 : 여러가지 많은 것들. 사랑했던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과 내 행동들, 그리고 끝나지 않던 경제적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니까 나의 꿈이나 이상같은 건 사치가 되어버렸거든. 어릴 때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가장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지. 어디든, 정말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었어.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 내가 도망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떠맡아버릴거란 사실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냥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만 생각한거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현 : ... 그럼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는 내 옆에 계속 있어줄거야?

(슬픔) 울먹이다가 애써 밝은 모습

수로 : (뜸들이며) 당연하지,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 딸 옆에 계속 있어줄거야. 물론 다시 돌아가도 그 모든 것들이 버겁겠지만 용기내서 한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살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 우리 수현이를 한번 더 사랑해줄 시간도 없었는데 말이야.

수현 :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벌떡 일어나서 대사) 난 못할 것 같아. 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아무리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려 노력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지칠 것 같아. 도망치고 싶어지는거지 봐봐, 내가 독립해도 엄마는 변하기는 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싫어.

수로 : 수현아, 모든 일들은 항상 수현이 너가 먼저야. 수현이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각한 일이 되고, 너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이 되는거야. (손동작) 그 문제를 계속 파고 들면 끝도 없더라고. 정말 조금만, 진짜 한발짝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건 정말 너의 삶의 작은 일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너는 살아갈 날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수현 : 음... 아직 내가 완전히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날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졌으면 좋겠네.

수로 : 그래, 수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아빠도 알아. 그렇지만 너는 아직 겨우 스무살이잖아. ...좀 끈대 같았나? 아빠가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서... 수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에 너의 전부를 쏟지 않았으면 해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비록 아빠는 도망쳤지만, 수현이는 그러지 않았음 좋겠어.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암전.

수현 : 아빠, 오늘 자고 가는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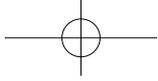
4장

수현은 몽롱한 상태로 잠에서 깬다.

수현 : (관객석을 향해 힘 주어 고개를 들며) 아빠, 아빠!

수현 : 뭐야..나 아직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남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네. (꽃다발을 쳐다보며) 치사하게...

수현은 아빠가 있던 자리에 놓여진 꽃다발을 바라본다.



(정적)

(쇼파 중앙에 앉고 땅을 응시하며) 아빠, 나 사실 너무 막막했어. 이제 막 성인이 된 스무살. 두개의 숫자가 날 괴롭게 하더라. (관객석을 살짝 둘러본다) 난 아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제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내가 모든 것을 건뎌야 된다잖아.... (다시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그 지긋지긋한 가족. 아빠도 잘 알지? (심호흡 한 뒤) 생각만해도 숨 막혀. 그래서 도망쳤어. 이 단칸방으로.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 드디어 자유다! 나만의 공간이 생겼구나!(작게 웃는다.)... 그런데 아니더라. 이제야 아빠 말이 조금 이해가 돼. 난 앞만 보고 그냥 무작정 도망쳤을뿐 목표같은 건 없었어. 그땐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니더라고.

어릴 적부터 혼자였던 세상 속에서, 내 편 하나 없는 곳에서 도망쳐온 게 바로 이 작은 단칸방이야.

(방을 둘러보며 벽을 만지작 거린다.) 이것 봐, 한 대 치면 무너질 것 같은 벽에 두꺼운 철문. 이런 집 하나가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야. 참 웃기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오며) 근데,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나봐.

정말, 정말로, 그때는 의미있는 일을 한다고 시작했었던 말이야. 근데 언제부턴가 내 꿈은 그냥 이 작은 단칸방 하나가 되어버렸던거지.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집착했어. (천장을 바라보며)...그냥 두려웠던 건가? 힘들게 가꾸놓은 내 집이 사라질까봐, 누군가 또 앓아갈까봐. 나의 행복이 사라질까봐... 그렇게 잘 숨었는데 결국에는 엄마라는 ‘불행’ 이 찾아오더라... 어찌어찌 해서 내보내긴 했는데. 왜인지 후련하지는 않았어. (관객석을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남탓만 하게 되고.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었나봐.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게 아닌, 저 두꺼운 문을 열고 세상을 제대로 마주보는 것부터 시작인거지. (숨 들이마시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단칸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오길 바랐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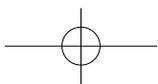
(대사 2초 후) 쇼파로 걸어가 관객석을 바라본 채로 꽃다발을 만지작 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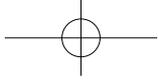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얼굴을 마주보고 한번 더 용기를 내서 다가갈 줄 알아야 했는데...

(뚜렛이 관객을 쳐다보며) 치사한 건 그들이 아니라... 나였네.

[전화벨 소리]

수현 : 여보세요 네? 아 경찰서요. 또 저희 엄마가... 네. 이젠 뭐. 익숙하죠. 근데 어찌겠어요. 가봐야죠. 제가 딸인데... 네, 네. 네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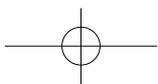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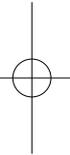


꽃다발을 제자리에 놓은 채로 수현은 나갈 채비를 한다.

문을 나서기 전 문고리를 잡은 채로 작은 단칸방을 잠시 바라본다. 문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하지
만 가볍게 열고 나선다. 이때 조명은 단칸방과 수현을 핀조명으로 부각되게 비춘다.

모든 조명이 서서히 꺼진다.

The End.



'Servant Drama'

담당교사
조영민

Servant Drama
김세연, 김예원, 박신비, 박지원,
신동엽, 윤주안, 임하연, 정다은

특별출연
오영화, 허윤진

협력 간사
김채영, 박예빈, 윤다희

